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7호 HYUNBULNEWS.COM 2025년 7월 2일(음력 6월 8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조계종, 사회적 약자를 품다

사노위, 6월 22일 봉은사서
사회적 약자 초청 법회 봉행
성소수자 · 참사유족 등 동참
총무원장 진우 스님 법문 설해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엄
평등사회 위해 등불을 들겠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빵 한 조각 생산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진 현실, 열악한 조건에 내몰린 새로운 시대 필수 노동자, 장애 짊어진 가족, 성소수자. 이들은 '사회적 문제'가 아닌 지금 여기 함께 숨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말없이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연대 불빛을 밝히기 위한 법석이 마련됐다. 법사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사회 각계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6월 22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평등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청소노동자, 콜센터노동자, 요양보호사, 세월호·제주항공 참사 유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사망자 유족,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유가족, 쪽방촌 활동가, 이주 노동자, 고공 농성 노동자,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 사회적 약자나 이들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 40명이 초청됐다.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봉은사 신도 등 10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소리없는 응원을 보냈다.

법상에 오른 진우 스님은 먼저 "보이지 않는 고통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돌봄과 성찰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법당에 모인 진정한 이유"라며 법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부처님이 오래전 이 땅에 와서 설한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을 언급하며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부처와 같은 존엄한 가치를 지니며 그 어떤 생명도 결코 하찮지 않다"며 "이는 교리나 철학에 머무는 것이 아닌 지금 여기 살아 숨 쉬는 모든 존재의 뿌리와 미래를 지켜주는 진리"라고 강조했다.

고통받는 이를 향한 자비심, 그들을 대신해 외치는 용기가 바로 보살행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께서 설한 팔만사천 법문은 결국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마음공부의 실천"이라면서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해 등불을 들어야 한다"고 설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말없이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연대 불빛을 밝히기 위한 법석을 마련했다. 6월 22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이날 법문에서 진우 스님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불교계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을 언급한 스님은 "불교는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종교"라면서 "불교는 누구보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왔고, 그것은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수행의 실천이자 부처님 자비의 시대적 응답"이라면서 법 제정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우 스님은 또 바깥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이라는 작은 우주를 다스리는 수행을 할 것을 조언했다. 밖으로는 정의롭고 따듯한 공동체를 만들고 안으로는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다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강조한 스님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여기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비로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마음 하나를 바꾸면 세상 풍경이 달라지고 이것이 불교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곁에, 그 누구의 삶에도 부처님은 항상 함께한다"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돼 고요한 위로가 돼주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이날 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함께 이주노동자 치료 및 긴급구제 기금 500만원을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법회 동참자들은 불교 성소수자 모임 '불반'의 김재현 총무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에서 "우리 모두는 이름만 다를 뿐 서로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는 한 몸 한 생명 같은 소중한 인연"이라며 부처님 지혜와 자비로 빈곤과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상생과 공존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법회 후 진우 스님은 사회적 약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3면〉

경주 열암곡 마애불 입불, 올해 말 결정된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진우 스님에 중간 보고
7~11월 모의실험 진행
"올해 안 실험 마무리"

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중점 원력 사업인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의 입불 여부가 올해 연말 최종 결정된다. 국가유산청은 7~11월 모의실험을 실시하고 12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 심의에 올릴 계획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6월 24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모의실험 추진 현황'을 중간 보고했다.

국가유산청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의 입불 가능성 검증과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2월 28일부터 실대형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마애불 취약점 분석에 따른 가력시 위험도를 예측해 불상 석제 모형을 제작, 입불 가능성 검증과 합리적 장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검증과 함께 좌대 형태, 지반 구조안정성 검토 등을 통해 마애불 석재의 취약점을 분석 및 가력시 위험도와 훼손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이날 이종훈 문화유산보존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마애불은 과거 지진에 의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과정에서 13개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입불과정에서 훼손을 막기 위해서 양중 및 이동 시험이 필수다. 국가유산청은 양중 실험은 8월 셋째 주까지, 이동 실험은 9월 넷째 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입불 후에도 지속적 자세안정성을 검토하는 것도 모의실험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주변 지형을 분석하고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양중, 이동 응력 분산을 위해 석재 모형을 감싸는 프레임을 제작 중에 있다.

국가유산청은 11월 말까지 입불 이후 안정성 실험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분석해 입불을 포함한 장기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 사적분과 심의에 올릴 예정이다.이후 심의가 완료되면 2026년 1월부터 모의실험 결과에 따른 현장 기반시설 조성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입불 사업이 추진된다.

최응천 청장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모의실험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사고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미얀마에 깨끗한 물을"



현대불교신문과 로터스월드가 열악한 식수환경으로 각종 수인성 전염병과 영양실조에 노출된 미얀마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전하는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깨끗한 물 한 모금이 '불교국가' 미얀마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승보공양 및 아미타불교요양병원 후원 동참 안내

무량공덕 쌓는 승보공양
우리 종단은 스님이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가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가복지는 출가 수행자의 교육·의료·주거·소득·장례 등 완전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승가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사찰,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의 승보공양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보를 공양하면 그 복이 무한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원금 지원 내용

스님 복지비 지원	아미타불교요양병원 지원
- 진료비 지원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정밀건강검진비 지원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진료비 지원 - 병원 운영 및 개선비 지원 - 제2병동 건립 * 재가불자 이용 가능

후원 동참 방법
• CMS 자동이체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전송
(사찰 종무소 비치,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전화 신청 : 02-2011-1981, 1982 / 010-2926-1726(토,일 휴무)
• ARS 전화 후원 : 060-700-1077(1통화 5,000원)
• 계좌이체 후원
- 승보공양 : 농협 301-0324-8575-91 대한불교조계종승려복지회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농협 317-0027-0531-51
의료법인대한불교조계종승려복지

문의
• 승려복지회 : 02-2011-1981 / 010-2926-1726
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02-2011-1982 / 031-677-2613
1752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녹배길 139

※ 승보공양 후원 시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연말소득공제 및 기타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로서
위의를 잃지 않고
지혜를 구하며 자비를 펼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은 승보공양 후원에 동참하여
무량한 공덕 쌓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덕 림 합장

취임 천일 진우 스님 "재정 혁신·AI 전법"

6월 23일, 조계사서 1000일 108배
스님 · 종무원 · 신도 400명 동참
"불교 미래 정성껏 가꾸겠다"
'빠른 시일 종책–로드맵 보고' 약속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진우 스님이 6월 2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1000번째 108배를 올렸다. 108배 후 진우 스님은 선명상 보급을 비롯해 재정기반 마련, AI콘텐츠 개발 등 미래 시대 전법 비전도 밝혔다.

취임 1000일을 맞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2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1000번째 108배를 올렸다. 선명상 보급을 비롯해 재정기반 마련, AI콘텐츠 개발, 청년세대 소통 등 장기적인 미래 시대 전법포교 혁신 비전도 밝혀 눈길을 끈다.

진우 스님은 2022년 9월 28일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일과 시작 전 108배를 해 왔다. 취임 1000일을 맞은 이날 108배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및 국장, 차팀장급 일반직 종무원, 조계사 대중스님과 신도, 그리고 신도단체장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화재 사고, 근본 대안 마련"

108배를 마친 진우 스님은 지난 1000일간의 소회를 밝혔다. 먼저 6월 10일 발생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화재 사고에 대해 교역직 스님들과 종무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 스님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종단의 안전 체계와 공간 운영에 있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이날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선명상 보급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스님은 "전국 사찰이 지역 특색에 맞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국민적 수행처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심신이 지친 이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길을 열어 주고 나아가 한국불교 재발흥을 이끄는 추춧돌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은 포교 원료, 신뢰는 재정 바탕"

이어 종단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투명한 운영, AI 포교콘텐츠 혁신, 출가자 감소 위기 속 미래 전략 등 장기적인 전법포교 혁신 비전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진우 스님은 "수행과 전법, 복지와 교육, 사회 공헌을 위해서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투명하고 지혜롭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는 종단, 지역 본말사에 재정적 자립의 길을 열어 주는 종단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의 각종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고 불교정신에 부합하는 윤리적 수익 사업을 육성, 사회적으로도 신뢰받을 수 있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AI시대, 불교의 위치에 대한 고민도 이어갔다. 진우 스님은 "불교의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로 정제하고, AI 학습 기반에 실어 불교의 방대한 지혜가 미래 세대의 언어로 전달돼야 한다"고 했다. 진우 스님은 이를 '문명적 전환'이라고 설명하며 "빠른 시일 내에 불교 콘텐츠의 디지털 전략, AI 전법 시스템, 스마트 교육 플랫폼 구축에 관한 종합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시일 내 종책–로드맵 보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의 악순환을 끊어낼 것도 강조했다. 스님은 "출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청년들이 다시 수행의 길을 사명으로 여기게 할 것"이라며 "진실한 울림이 한국 사회의 미래 세대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으로서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자리이타(自利利他)를 강조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 실행 로드맵을 성실히 보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조계사 사부대중은 진우 스님에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기금 1억원을 전달하며 원활한 복구를 염원했다.

조계종 청사 화재 복구 사부대중 '한마음'

봉은사 · 조계사 1억원 전달
교구본사주지협 5000만원



가림막이 쳐진 총무원 모습.

6월 10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조계종 총무원 청사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원활한 복구를 염원하는 대중들의 마음이 모여지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6월 20일,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6월 23일 진우 스님에게 복구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솔선수범 기금 전달에 감사하다"며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 "건물에 분진이 많이 들어가 전면적으로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종단 조직규모도 커지고 앞으로 사회적 역할도 더 해 나가야 하니 그야말로 조계종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새로운 청사를 조성하는 대작불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한 재건의 뜻을 내비쳤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은 6월 24일 5000만원을 전달했다.

최근 영남 지역 산불로 큰 화재 피해를 입은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참담한 심정을 잘 안다"면서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다.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은 "화재 피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회장 스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화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빠른 시일 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 조사가 끝날 것"이라면서 "원만히 복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대중은 6월 20일 진우 스님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 장명 스님이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가 화재 복구를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을 당부했다"고 하자 진우 스님은 "본사 살림이 팍팍한데 성금을 내줘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장명 스님은 "전달 기금은 포살법회 날 하루만에 모연된 것이다. 그만큼 대중들의 원활한 화재 복구에 대한 염원이 크다"고 말했다.

강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도 6월 22일 5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화재 피해복구 지원에 마음을 모아준 점에 감사함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 일상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직속 대외협력자문위 발족

정치, 문화유산, 학술, 포교 등
각계 전문가 20명 위원 위촉해
"열린 자세로 종단 발전에 노력"


상진 스님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각계 전문가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종단 주요 종책 사업에 대한 자문과 정책 입안에 참여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전문가들의 종단 사업 참여로 종단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의지로 풀이된다.

태고종은 6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웅보전에서 '총무원장 직속 대외협력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자문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롭게 영입된 자문위원은 정치, 경제, 문화유산, 학술, 전법포교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정치·경제계에서는 김장실 전 국회의원,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김병하·정용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새로 합류했으며, 문화예술계에서는 조환기 한국예총 상임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전보다 강화된 분야는 문화유산과 전법포교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경기도 문화유산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승희 국립순천대 연구교수와 문화유산 활동가로 잘 알려진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지자체 공무원 학예사 단체인 엄원식 전국학예연구사회장, 불교문화유산 전문가인 인용민 청람문화유산연구원 실장 등이 영입됐다.

전법포교 분야에서는 전 대학생불자연합회장인 주현우 해탈컴퍼니 대표와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고종은 훌륭한 문화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드러낼 기술과 역량이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종단을 바라보려 한다. 외부 전문가, 사회 각계 인사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청문회서 성경 인용 "헌법정신 위배" 비판

박선원 의원 성경 꺼내 읽어
불교인권위 "헌법 위배, 사과를"
종평위 "제도 보완 마련" 촉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성경을 꺼내 읽은 데 대해 불교계가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6월 24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후보자의 과거를 언급하다 옆에 펼쳐둔 성경을 들고 일부 구절을 읽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 믿음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성경 말씀을 붙잡고 힘든 시간을 뚫고 오신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도관 스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당과 박선원 의원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이하 종평위)도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엄격한 정교분리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종평위는 "특정 종교 경전이나 교리를 공적 논의 기준으로 삼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종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종교 편향적 언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여수령 ·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신 청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사회 소수자 목소리 외면 말아달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대표


김태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유가족 대표


이준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최현환
한국옵티칼노조 지회장


김량화
동작구 아트센터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우다야 라이
네팔출신 이주노조 위원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사노위, 6월 22일 봉은사서 간담회
10개 분야 사회적 약자들 목소리 내
불교 연대 감사…“평등 사회 함께”
진우 스님 “목소리 대변 노력하겠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6월 22일 서울 봉은사에서 개최한 ‘평등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법회 및 간담회’는 가감없는 소통의 법석이었다.

법사로 나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 각계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화하며 “사회 곳곳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굳건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제주항공과 화성 아리셀 등 산재로 인한 유가족, 돌봄 감정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가족, 홈리스, 전세 사기 등 10여개 분야를 대표한 이들은 절절한 사연으로 통해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귀 기울이고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간담회는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이 참석자 모두에게 전해지는 시간이었다. 간담회에 모인 각계 단체들의 대표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막막한 순간에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사노위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불교계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과 지지에 대한 큰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호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불교는 성소수자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종교”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충분히 관용적이고 포용적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표한 이 대표는 “우리는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하고, 숨기고 싶은 않은 것”이라면서 “(불교계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사회적 목소리를 계속 내주길 바란다.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태윤 화성 아리셀 유가족 대표는 참사 후 힘든 싸움 중 투쟁 현장에 유가족과 함께 해준 사회노동위 스님들에게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느끼고 위안을 받았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대표는 “아리셀은 당시 화를 당한 고인 23명뿐 아니라 가족 삶도 멈추게 만든 살인자”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명확한 진상 규명이다. 이는 재발방지를 넘어 여기 있는 분들의 안녕과도 관련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는 조계종에서 봉행한 49재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이뤄지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2024년 12월 29일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며 현재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많은 유가족이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문제점을 조사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덮고 간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예비 유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 노조지회장은 구미 공장 옥상에서 고공투쟁 중인 옵티컬 노동자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지회장은 “우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약해 고공에서 소리쳐야 듣는 사람이 생긴다”고 고공 농성의 이유를 설명하고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국 법체제 속에 인간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에 불교계도 함께 해달라”고 청했다.

김량화 동작구 아트센터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는 청년인구의 80% 이상이 임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청년들의 삶에 힘이 돼 줄 것을 호소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약 3만명 중 대부분이 청년층임을 밝힌 김 대표는 “피해자 지원법이 제정됐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 피해자들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가 청년들의 인간다운 삶에 외면하지 않도록 조계종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정서적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요양보호사들이 조계종의 지원으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큰 위로를 받았다”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민 신분과 처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민 250만, 이주노동자 150만 시대에 농어촌 및 도심에서 이주민 없이 생산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역할을 인지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발달장애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죽은 뒤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 지에 대한 것”이라며 “부모가 없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복지 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한 진우 스님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지만 불안정한 노동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사회가 자본, 이윤의 확대보다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한 진우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 공동체가 발전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에 감사하다”면서 “종교, 특히 불교는 공동체 가치를 더 알려 나가고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함께 연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약속도 잊지 않았다. 진우 스님은 “13년 동안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참사현장을 비롯 다양하게 연대활동을 해왔다”면서 “총무원장으로서 현 위치에서 사회 각계 지도층에게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군승 58기, 임관을 신고합니다!”

신임 군승 12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

최전방 부대 배치 군승 다수
진우 스님 선명상 활용 당부
“군승, 불교중흥 초석”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23일 조계사에서 새로 임관하는 군승 58기의 임관 신고를 받았다.

“신고합니다! 군승 58기 12명은 2025년 7월 1일부로 군승 임관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군포교 일선에서 장병들에게 불법(佛法)을 전하는 신임 군승들의 우렁찬 임관 신고가 울려퍼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23일 조계사 전통문화관 담소에서 새로 임관하는 군승 58기의 임관 신고를 받았다.

이날 진우 스님에게 신고한 군승 58기는 총 12명(육군 3명·해군 4명·공군 5명)으로 이들은 육군 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해 군종장교가 되기 위한 1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군승으로서 임관하게 됐다.

이날 진우 스님은 “군승들이야말로 한국 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존재”라며 강한 사명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젊은 세대가 아직도 불교를 잘 모르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이 각박해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하며 “청년들이 불교를 제대로 알게 되면 자비심이 자라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군 장병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일은 곧 사회와 국가를 위한 핵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신임 군승들의 이력을 소개하며 “올해에는 최전방 부대로 배치된 군승들이 많다”고 전했다.

“다 잘 해내리라고 믿는다”고 격려한 진우 스님은 군포교에서 선명상의 활용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우선멈춤’과 같은 선명상 수행법은 마음을 여유 있게 해 부대 내 인사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며 “군승들이 선명상을 잘 익혀 군 장병들에게 전법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한다면 그것이 곧 불교의 중흥과 사회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에 대해 법원 스님은 “현재 군 법당 250여 곳에는 상주 법사가 없기 때문에 선명상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법회에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특히 파병 부대에서는 간부들이 선명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법회를 진행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승 안거 때 선명상 지도법사들을 초청해 활용법을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천안에 진각종 가르침 전하겠다”

진각종, 천안심인당 헌공불사 봉행



진각종 총인 덕일 대종사, 통리원장 능원 정사, 교육원장 정법 정사 등이 천안심인당 헌공불사 및 본존이운 가지불사에 앞서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있다.

“하늘의 눈이 열리니 하늘 아래 온 세상이 편안한 날이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6월 24일 천안심인당(주교 원담 정사) 신축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천안지역 교화의 새 장을 열게 될 천안심인당은 연면적 1136.6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신축됐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기념사를 통해 “천안심인당 헌공불사를 봉행하는 뜻깊은 날 우리들의 마음도 환희심으로 가득하다”면서 “천안심인당 이전 신축은 신교도들의 수행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함은 물론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부응하는 새 도량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총무부장 법운 정사는 강도발원을 통해 “천안심인당이 나날이 발전하여 종단과 대전교구를 융성케 하는 초석이 되고 교화 만당 되기를 서원한다”면서 “진각행자 모두 부지런히 보살행을 닦아 세상 모두가 성불하는 대서원을 세워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천안심인당은 진기 16년인 1962년 대전에서 교화의 문을 열었던 사천왕심인당의 맥을 이어 진기 68년인 2014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10로 68(신방동 1879)에서 천안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화를 담당하다가 10여 년 만에 현재의 자리로 옮기게 됐다.

헌공불사에 앞서 금강아사리 총인 덕일 대종사와 행법아사리 통리원장 능원 정사, 교법아사리 교육원장 정법 정사 등이 본존이운가지불사를 봉행했다.

신중일 기자

다목적 원톱 시스템 이란?

다목적 염불법당시스템은 전기 연결없이 간단하게 들고 다니며 사용함으로 법당 50평 사용 및 산신각, 소각장, 야단법석, 방생용, USB사용과 염불소리 연출, 설법, 성우소리 연출, 편집, 녹음기능 및 전기연결로는 법당서 계속사용, 전기없이 야외에서는 9시간 사용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5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98만원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불자·시민들 "선명상 수행 실천" 다짐

조계종 · 인천강화연합전법단
송도 센트럴파크서 선명상대회
인천 · 강화 불자 1500명 참여
진우 스님, 선명상 주제 강연
'우선 멈춤' 선명상 방법 전해

인천 송도=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과 인천강화연합전법단은 6월 21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인천시민 행복을 위한 국제선명상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대회 참여 불자들이 선명상 실참하는 모습.

"참가 사부대중은 오늘 선명상 실천을 통해 내가 바뀜으로써 이웃과 주변이 바뀌고, 우리 지역의 행복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해나가는 인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천·강화 지역 불자와 시민들이 선명상 실천과 대중화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인천강화연합전법단(공동단장 여암·성안 스님)은 6월 21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인천시민 행복을 위한 국제선명상대회'를 개최했다.

선명상 보급을 위한 '지역 선명상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선명상대회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인천강화연합전법단의 첫 대형 행사여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대회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포교부장 남전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강화 정수사 주지), 강화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 강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인천법명사 주지 선일 스님,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장, 박찬대·정일영 국회의원,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과 인천·강화 지역 불자와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조계종 어산종장 동환 스님의 화청과 오정례를 통한 '평화 기원 염불명상'으로 문을 열었으며, 진우 스님의 선명상 강연과 선명상 실참, 행동실천강령 낭독 등이 진행됐다.

이날 진우 스님은 선명상 강연을 통해 선명상 실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선명상은 '선(禪)'과 '명상'을 결합한 용어로, 불교 전통 수행법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선명상은 불교적 해탈과 중도 사상을 바탕으로 마음의 분별심을 없애고, 고요함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 사회는 물질문명은 풍요하지만 마음은 고통에 휩싸여 있다. 돈방석에 앉아도 번뇌에 시달릴 수 있고, 가시방석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곳이 극락"라고 비유하며 "스스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면 어떤 환경도 근본적인 행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구체적인 선명상 수행 방법으로 '우선 멈춤' 명상법을 제안했다. 이는 감정이 격해질 때 5초간 호흡을 멈추고 자신의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충동적인 행동을 줄이는 방식이다.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 5초의 멈춤이 인생을 바꾼다"고 조언한 진우 스님은 선명상이 특정한 장소나 자세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앉아서도, 서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명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라 전했다.

진우 스님의 강연 후에는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지도로 선명상 실참이 이뤄졌다. 금강 스님의 지도에 따라 1500여 대중은 자신의 자리에서 차분히 마음을 내려놓으며 선명상 수행을 체험했다.

청정한 몸과 마음을 만든 참가 대중들은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이날 대회에서 참여 대중은 수미정사 주지 금선 스님, 우성찬(어린이 대표), 우은진(대학생 대표·인천대), 백순심(장년 대표·포교사단 인천지역단장) 씨가 대표로 낭독한 행동강령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끊임없는 욕심을 비우는 데 있음을 알아차렸다"면서 "우리는 지혜의 완성과 자비의 실천은 둘이 아님을 알고 항상 양극단을 여의고 국민과 더불어 화합해 행복과 평화가 가득한 사회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발원했다.

인천강화연합전법단 공동단장 여암 스님은 "인천강화연합전법단에서는 오늘 국제 선명상대회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대한민국 제2도시로 웅비하는 대한민국 관문의 도시 인천광역시 위상에 걸맞게 자비를 실천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지역문화를 꽃피우겠다"면서 매일 선명상 실참수행으로 상생과 화합의 인천광역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선명상 대회에서는 미래본부가 개발한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인 심주 만들기와 양말목 공예 선명상, 위빠사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운영돼 시민과 불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별빛·달빛 아래 무더위 식힐 금강경 정진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7월 12일 별빛·8월 9일 달빛기도

회향 없는 금강경 독송 철야정진으로 신행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가 무더운 여름을 맞아 특별한 기도 자리를 마련했다. 바로 별빛과 달빛 아래서 무더위를 이겨내는 '별빛·달빛 철야용맹정진 기도'다.

기도회는 7월 12일(별빛 기도)과 8월 9일(달빛 기도), 두 차례에 걸쳐 월정사 적광전 앞마당에서 봉행된다. 해발 700m에 위치한 월정사의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쉼과 여유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1300~1500명 규모로 준비 중이다.

특히 이번 기도회는 고령화사회에서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도반들과 함께 금강경을 독송하며, 생활 속에서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경내 마당에는 조명을 설치해 독송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삼삼오오 편안하게 기도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모기장 텐트도 배치할 계획이다.

월정사 수행원장 자현 스님은 "삶에서 중심을 잃으면 행복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진을 통해 내면의 평안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033-339-6791

김내영 기자

더프라미스, 미얀마 2차 긴급구호

6월 11~20일, 샨주 사찰 등서
취약계층 식재료 · 학용품 지원



재난사회복지전문기관 (사)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6월 11~20일 미얀마 샨주 인레(Inle) 및 따웅지(Taunggyi)에서 지진 피해 주민과 아동을 위한 2차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다.〈사진〉

이번 2차 구호에서는 1차 활동에 이어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또 사찰 4곳과 학교 4곳을 선정해 식재료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모든 학년에 필요한 노트 등 학용품을 지원했다.

향후 (사)더프라미스는 미얀마 샨주의 시민단체 및 기관과 협력해 미얀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사장 묘장 스님은 "1차에 이어 2차 긴급구호를 통해 미얀마를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미얀마는 아직도 복구를 위한 도움이 절실하다"고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했다.

임은호 기자

진관사 항일·애국정신 담은 '진관아리랑' 첫선

6월 22일, 백초월길 예술 축제
진관사 일원서 문화공연 등 다채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진관사 태극기에 담긴 애국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2025 백초월길 예술축제 진관아리랑'이 6월 22일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 일원에서 열렸다.〈사진〉 특히 이날 공연에서 백초월 스님과 진관사 태극기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합창곡 '진관아리랑'이 초연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진관사 앞 백초월길에서 진행된 거리축제로 막을 열었다. 한문화체험관 인근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독립선언문 서명운동 체험', '백초월 스님, 진관사 태극기, 독립운동 사진전' 등이 진행됐다.

오후 5시에는 진관사 대웅전 야외 무대에서 본공연인 '진관아리랑'이 개최됐다. 주지 법해 스님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이번 예술축제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얼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뜻깊은 문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 했다.

본공연에서는 중앙대 예술학부의 기악합주와 은평 우리소리국악원의 경서도소리, 청강판소리고법보존회의 판소리고법 합북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이옥천 명창이 '백초월 스님의 조국과 태극기 사랑'을 주제로 여성소리국극을, 정명자 살풀이춤 이수자가 '진관 살품이춤'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열띤 환호를 이끌어 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동국예술단과 뭇소리 합창단의 공연으로 '진관아리랑'이 처음 공개됐다. '진관아리랑'은 백초월 스님과 진관사 태극기를 주제로 김연갑 아리랑연합회 이사장이 작사하고,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이 작곡한 흥겨운 합창곡이다. 백초월 스님의 항일운동 거점이었던 진관사에서 초연돼 행사의 피날레를 의미 있게 장식했다.

여수령 기자

전국여성불자회, 신흥사서 '쓰담순례' 성료

6월 21~22일, 100명 동참
화암사 · 낙산사 등 참배도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가 6월 21~22일 속초 신흥사 일대에서 '신흥사 해맞이 가는 길'을 주제로 쓰담순례를 성료했다.〈사진〉

전국여성불자회 임원 및 회원 100여 명이 동참한 이번 순례는 신흥사 설법전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이어졌다. 회원들은 계조암·진전사·화암사·낙산사를 참배했으며, 낙산사 해수관음상 앞에서 해맞이 명상을 하기도 했다.

김의정 회장은 "순례를 통해 영동지역 불교의 역사와 가치를 돌아보고, 설악의 기백을 가득 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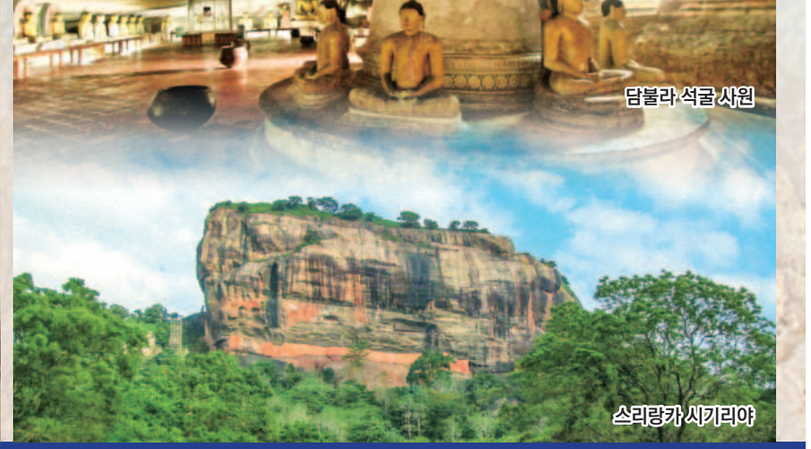
김내영 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부터~

인도 보드가야

인도 마하보디 대탑

순수의 나라
라오스 완벽 순례 4박6일
▶일 정 : 인천-비엔티안-루앙프라방-방비엥-비엔티안-인천
★ 체크포인트 : 고속열차(2회), 탁발 행렬 참관, 꽝시 폭포, 탐쌍/탐남동굴, 블루라군
▶동참금 : 문의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담불라 석굴 사원
스리랑카 시기리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자비 손길로 미얀마 주민의 무너진 삶에 희망을 건네다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진 피해 지역 구호품 전달

네피도 마을 2곳 방문해
총 250가구 생필품 지원
"용기 잃지 말길" 격려도

미얀마 네피도=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미얀마 강진으로 아내와 누나를 잃은 소모이 씨 집을 찾아 위로를 전했다.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에서 구호물품을 싣고 있다.


성관 스님의 격려에 주민들이 합장으로 인사했다.



삔마나 마을 200가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지당께 마을에도 쌀 · 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갈라진 도로와 무너진 집들. 지진으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은 미얀마 주민들을 위해 로터스월드가 직접 현장을 찾아 깊은 위로와 희망을 건넸다.

국제구호협력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6월 18일 강도 7.7 강진으로 참혹한 피해가 발생한 미얀마 네피도 지역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주민들을 격려했다.

로터스월드는 지진 발생 직후인 4월 1일부터 전국 불자들과 함께 긴급 모연을 시작하는 한편, 현지 봉사단체 '포우바뗄렛야'와 협력해 피해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지원이 시급한 마을 두 곳을 중심으로 구호 계획을 수립했다. 포우바뗄렛야는 네피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봉사단체로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임시 주거지를 마련하는 등 복구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모연을 통해 모인 총 1만달러(한화 약 1400만원) 중 6000달러는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를 통해 현지에서 쌀(25kg), 식용유, 돗자리, 담요, 라면, 의류 등으로 구성된 구호물품 250세트 구매 비용으로 사용됐고, 이는 직접 조달해 피해 가구 250곳에 전달됐다.

특히 국내 유아동복 브랜드 아가방앤컴퍼니의 아동복 지원도 함께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아가방앤컴퍼니는 지진으로 피해 입은 영유아들을 위해 아동복, 유아복, 내의류 등 3800벌(판매가 기준 약 2억원 상당)을 로터스월드에 기증했고, 4월 23일 선적을 거쳐 6월 17일 미얀마에 도착해 현장에서 배분됐다.

이날 로터스월드는 미얀마 양곤에서 차량으로 8시간을 이동해 피해 지역인 네피도에 도착했다. 네피도에 가까워질수록 도로 곳곳이 갈라지고, 무너진 구조물들이 방치된 채 남아 지진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첫 번째로 구호품이 전달된 지당께 마을은 지진으로 47명이 사망하고, 50가구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이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한 할머니는 손자를 등에 업은 채 벽이 무너져 손자를 잃기도 했다.

성관 스님은 "미얀마 지진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늦게 찾아와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스님은 "서로 의지할 것도, 믿을 것도, 존중받을 것도 없을 때 인간은 가장 괴롭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상실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용기 잃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다시 평안과 건강이 깃들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린다"고 격려했다.

로터스월드는 지당께 마을 피해 가구를 직접 찾아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소모이 씨는 가족 7명 중 아내와 누나를 잃고, 나무로 임시 지은 판잣집에서 남은 가족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당시 아내는 아침밥을 짓고 있다 사고를 당했다. 성관 스님은 "살아 있는 사람은 돌아가신 가족을 대신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며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그 고통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남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스님의 따뜻한 위로에 담담하게 사고 현장을 설명하던 소모이 씨는 "정말 감사하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이어 방문한 삔마나 마을은 주민들이 자주 찾던 쇼핑센터 붕괴로 100여 명이 사망하고, 350가구가 피해를 입은 곳이다. 로터스월드는 이 가운데 피해가 컸던 200가구를 우선 선정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성관 스님은 "큰 피해에 비하면 부족한 지원일 수 있지만, 한국 불교계의 진심을 담아 준비한 정성이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로터스월드는 남은 모금액으로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중장기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참을 희망하는 이는 로터스월드(02-725-4277)로 연락하면 된다.

"국제구호는 공감과 연대의 길"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2010년 지부 설립으로 미얀마와 인연
코로나19 · 대홍수 당시도 지원 이어가
주민에 '혼자 아니다'는 믿음 전하고파
신뢰 기반으로 헌신해준 구성원들 감사

"지진 피해 현장을 마주하고 다시금 느꼈습니다. 세상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서로의 고통에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아픔을 보듬고 공감하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제구호협력단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직접 방문했다. 스님은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살아가려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국제구호활동의 본질을 되새겼다.

피해 현장을 둘러본 성관 스님은 "지진이라는 비극을 외면할 수 없어 로터스월드 차원에서 긴급구호 캠페인을 추진했고, 저 역시 직접 현장을 찾게 됐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 빨리 오지 못해 미안하고,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2010년 지부 설립으로 미얀마와 인연을 맺었다. 곳곳에 남아 있는 부처님의 흔적과 주민들의 깊은 신심이 큰 동력이 됐다. 성관 스님은 "미얀마는 캄보디아보다 인연이 늦게 닿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지만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15년 넘게 미얀마의 교육환경과 생활 여건 개선에 힘써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스님들이 탁발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당시에는 식료품을 지원했고, 2023년 말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모기장과 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성관 스님은 "자연재해는 선진국, 후진국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인해 생긴 업의 결과"라며 "재난은 기꺼이 받아들이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아무리 낡고 오래된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도, 그 이면에는 안전을 방치한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성하고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갈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국제구호활동의 방식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스님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며 시작된 세계화가 이제는 경쟁과 욕망으로 변질되고 있고, 공감과 연대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이 옳다고 믿고 멈추지 않고 가야 한다. 그것이 국제구호단체가 짊어진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성관 스님은 로터스월드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이윤이나 영리를 바탕으로 생각했다면 로터스월드는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온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 운영되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김내영 기자

"피부병 앓는 7살 포다 스님에게 '맑은 물'을"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양곤 외곽 삔야쉐봉 사원학교
스님 35명 생활…300명 교육
저수지 물 천에 걸러 식수 사용
설사·결막염 등 각종 질병 노출

짧게 깎은 머리 사이로 상처 자국이 드러났다. 군데군데 벗겨진 두피에는 피고름이 맺혀 있고, 긁힌 자국 위로 굳은 피딱지가 덕지덕지 앉아 있었다. 올해 7살, 출가한 지 1년 된 포다 스님은 지금 매일 오염된 물과 싸우며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포다 스님은 미얀마 바고 지역 출신이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하루 벌이 노동자로 살고 있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가족은 아이가 '부처님 품에서 배울 수 있길' 바라며 빚을 내 삔야쉐봉 사원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그가 사원학교에 들어온 직후 피부병이 시작됐다. 이유는 명확하다. 정수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오염된 물로 세수와 목욕을 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저수지에서 물을 큰 통에 담아 하루쯤 두고 침전물을 가라앉힌 뒤 천에 걸러 마신다. 겉으로는 맑아 보이지만 세균과 유해 물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

피부병은 물론 설사·위장병·결막염 등 각종 질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매년 50만 명 이상 어린이가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동은 피부질환부터 장기 감염, 성장 지연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겪는다.

포다 스님이 지내는 삔야쉐봉 사원학교는 미얀마 양곤 외곽에 있다. 사원과 학교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종합 교육공간으로, 출가한 어린 스님 35명이 생활하며 수행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또 주변 마을 초등학생 200여 명과 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이곳으로 등교해 수업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매일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수 한 통은 900짯(한화 약 340원). 한 사람에게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려면 하루 50통 이상이 필요한데, 사원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아이들은 탁한 물을 마시고 씻는다. 같은 질환이 반복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꿀 수 없는 셈이다.

주지 빤리자 스님(65)은 "아이들이 땀 흘리고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깨끗한 물조차 마음 놓고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세수 한 번, 손 씻기 한 번이 병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하루하루 위태롭고 속이 탄다"고 우려했다.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아무리 걸러도 물 마실 때 알갱이 같은 게 씹혀요. 배 아픈 적도 여러 번이에요."(10살 돌란 스님) "비 올 땐 통 열어놓고 빗물 받아서 써요. 근데 더울 땐 마실 물이 모자라요. 힘들어요."(10살 뚜엔뗏 스님)

삔야쉐봉 사원학교의 스님들과 학생들은 언제든 마음 놓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날이 온다면 포다 스님도 병 없이 배우고 자라, 언젠가 누군가를 돕는 훌륭한 스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돼 있다. 그만큼 삶에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미얀마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은 지난해 7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얀마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선물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간 전국 불자들의 십시일반 모연으로 사원학교 4곳에 정수시설 4기를 완공했다.

삔야쉐봉 사원학교 정수시설 조성에 동참을 희망하는 이는 로터스월드(02-725-4277)로 연락하면 된다.

후원 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미얀마 양곤=김내영 기자


올해 7살로 출가한 지 1년 된 포다 스님.


큰 통에 물을 담아 침전물을 가라앉혀 식수로 사용한다.


겉으론 맑아보여도 세균과 유해 물질은 여전하다.


포다 스님의 두피 곳곳에 상처 자국이 선명하다.

상월결사 문화공연법회 '쉼' 부산서 피날레

6월 2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성파 대종사, 죽비로 울림 전해
비보잉·전통음악·미디어아트 등
고운사·청년 전법 기금 전달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주최한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PAUSE)'이 6월 2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회향했다. 상월결사는 공연에 앞서 고운사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와 청년 전법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가 주최한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PAUSE)'이 6월 2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회향했다.

이번 공연은 의정부 초연을 시작으로 구미, 논산훈련소를 거쳐 마지막으로 열린 다섯 번째 무대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예술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새로운 전법의 형태로 주목받았다.

이날 공연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BBS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대종사,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BBS부산불교방송 사장 원허 스님 등 전국 대덕 스님들과 재가불자 2000여 명이 참석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특히 '쉼'이라는 휘호를 내린 종정 성파 대종사는 직접 공연장에 참석해 공연 도중 객석에서 죽비 삼성을 울리며 극적인 울림을 선사했다. 성파 대종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주법계는 수와 금·목·토·화·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치면 결국 마(魔)로 변하게 된다"며 "이번 산불은 불의 과잉이 불러온 자연의 경고이며, 우리는 이로부터 '용심(用心)'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 공연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수행이며 전법이고, 불교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는 몸짓"이라며 "부산에서의 회향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은 '잠시 멈춤'을 주제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 '논스톱(NONSTOP)'에서는 비보잉과 합창을 통해 디지털 과잉과 중독에 물든 현대인의 삶을 표현했고, 2장 '스크림(SCREAM)'은 소리꾼의 절절한 창과 현대무용으로 내면의 고통과 분열을 형상화했다. 3장 '퍼즈(PAUSE)'에서는 공연장이 암전되며 완전한 정적이 연출했다. 이때 성파 대종사가 죽비를 세 번 울리며 깊은 '깨어있음'의 순간을 이끌어 냈다. 마지막 4장 '플레이(PLAY)'에서는 모든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회복과 자유, 기쁨을 퍼포먼스로 표현하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무대에는 최예림 소리꾼, 길대호 가수, 김여주 무용수, 아역배우 문성구, 상월비보이팀, 상월청년합창단, JH콰이어 등이 참여해 불교정신을 다양한 예술 언어로 풀어냈고, 비보잉과 전통음악,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이색적 구성은 종교적 경계를 넘어선 큰 감동을 전했다.

공연에 앞서 고운사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와 청년 전법을 위한 기금 전달식도 열렸다. 범어사 본·말사에서 고운사에 5000만원의 복구 기금을 전달했고, 문화공연 후원금으로 범어사와 통도사가 각각 5000만원, 원허 스님이 100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동국대 WISE캠퍼스 소속 6개 불교동아리에 6000만원, 범어사 관할 11개 대학에 1억 1000만원, 통도사 관할 3개 대학에 3000만원의 전법지원금도 함께 전달됐다.

경봉 대종사 추모다례…"선풍의 큰 스승, 그 뜻을 잇다"

경봉장학회, 장학금 2600만원
정도 스님 편찬 연구서 봉정도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총 26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한국 근현대 선풍(禪風)의 큰 줄기를 이룬 경봉당 정석 대종사의 열반 43주기를 기리는 추모다례가 6월 22일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에서는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등 원로 대덕스님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비구·비구니 대중, 전국 문도 스님, 유족, 신도들이 함께 자리해 스님의 덕화와 수행 정신을 되새겼다.

헌다와 파산게 봉독에 이어 진행된 재단법인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7명, 학사과정 2명 등 총 14명의 학인스님에게 각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이 전달됐다. 아울러 통도사 승가대학에 400만원, 보광선원·호국선원·무위선원 등 수행처와 영축율학승가대학원에는 800만원이 지급돼, 총 26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장학증서는 문도회장 원산 스님이 수여했으며, 장학생을 대표해 동국대 대학원 과정의 법연 스님이 받았다.

특히 이날 정도 스님이 편찬한 〈한국 근현대선 연구-경봉 대선사 삼소굴 일지〉(맑은소리 맑은나라)도 봉정돼 의미를 더했다. 본서는 경봉 스님이 6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일기인 '삼소굴일지'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기, 불교계의 변화 등 격동의 근현대사를 수행자의 눈으로 바라본 기록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시조문학 확산과 세계화 위해 다함께 진력"

제42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
6월 21일…대상에 김소해 시인

시조문학의 대중화와 정형시의 전통 계승을 위한 제42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이 6월 21일 경남 양산 영축총림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에서 봉행됐다.〈사진〉 성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서송 스님)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은 전국 시조시인과 문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문학의 창작 저변 확대와 시대정신을 담은 시조 육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성파시조문학상 제정자인 중봉 성파 대종사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운영위원장 서송 스님, 최성아 운영위원, 유자효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대상 수상자 김소해 시인을 포함한 각 부문 수상자들과 사부대중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성파 대종사는 격려사에서 "시조는 우리말과 우리 글로 시작된 문학으로, 한국문학의 뿌리라 할 수 있다"며 "한자가 전래된 이후 불교에서 이를 우리말로 옮기려는 과정에서 시조가 등장했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도 이미 언해본을 통해 시조문학의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조는 민족문학의 근본이자 문화유산인 만큼, 앞으로도 시조문학의 확산과 세계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위원장 서송 스님은 "성파 대종사님의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시작된 성파시조문학상이 42년간 계승돼 왔다"며 "시조는 전통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민족 문학의 갈래로서, 이제 그 꽃을 피워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에서는 김소해 시인이 〈서너 백년 기다릴게〉로 대상을 수상했다. 김 시인은 "시조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있다"며 "그 사랑이 지나쳐 달뜨는 밤마다 헤매던 길 중간에 이 상이 있어 기쁘다. 시조의 길을 더 헤매며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호국영령 합동위령제 봉행

부산종교인평화회의, 6월 23일
6개 종교별 의례로 공동 추모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UN군 전몰장병과 한국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위령제가 봉행됐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 스님)는 6월 23일 부산 남구 UN기념공원 내 위령탑에서 'UN군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6대 종단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전몰장병의 희생을 기리며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추모의 장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UN기념공원 상징구역에서의 헌화 및 참배로 시작됐으며, 이어 2부 본행사에서는 개회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봉창, 묵념, 내빈 소개, 추도사, 종단별 추도식, 추모의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정산 스님은 추도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UN군 전몰장병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의 헌신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되새기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종교인들이 함께 정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종단별 추도식에서는 불교, 성공회(NCCK),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6대 종단 대표들이 순서에 따라 기도문과 추도사를 봉독하며 엄숙한 의례를 진행했다. 유엔군 11개국 2300여 위 전몰장병을 위한 기도와 함께, 한국전쟁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매년 유엔기념공원에서 6대 종단의 전통의식을 통해 전몰장병의 희생을 기리며, 종교 간 화합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2025년도 부산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시민참여와 추모의식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연등회 '우수'

부산연등회 실무자 평가회서
"한마음으로 함께했기에 가능"


올해 부산연등회에서 선보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장엄등.

불교문화 장엄등으로 시민과 소통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불기 2569년 부산연등회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6월 26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관 2층에서 열린 '2569 부산연등회 실무자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에는 연등회 집행부와 사찰 실무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연등회의 운영 전반을 돌아보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전에 수합된 실무자 설문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단체와 아이디어상 수상자도 함께 확정됐다.

이날 수상자는 △우수단체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부산시장상) △전통등강습회 최우수작 배기매 불자(옥천암) △아이디어상 1등 곽은영 기자(e붓다) △아이디어상 2등 송순애 불자(불교TV 염불공양회)가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를 대표해 박관수 과장(한마음선원 부산지원)는 "우리 신도님들은 늘 한마음으로 움직인다. 준비 과정과 행사 당일 모두가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힘든 일도 가능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석산 스님은 "부산연등회 행사 준비를 시작한 지난 2월부터 각 분야 실무자들이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해 준 덕분에 모든 일정이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함께해준 모든 분의 신심과 원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오늘날 평화는 호국영령 희생 덕분"

진여원, 진여호국영령위령재
6월 19일, 화명 현충공원서



조계종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이 6월 19일 부산 북구 화명동 현충근린공원 내 호국추모탑에서 '제27회 진여호국영령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남보타월 봉행위원장(진여원 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27년 동안 진여호국영령위령재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와 많은 분의 아낌없는 관심 덕분"이라며 "진여원의 작은 노력이 유가족과 호국영령께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승범 추진위원장(부산시 북구 구의원)은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자유와 평화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며 "이번 위령재가 진정한 나라사랑의 길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연, '제1회 금강경 독송회'

13개 사찰·300여 명 동참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재가불자를 위한 수행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6월 20일 부산 대광명사 대광명전에서 '제1회 우리말 금강경 독송회'를 봉행하고, 재가 하안거의 문을 열었다.〈사진〉

이번 독송회는 올해 처음 참여한 해동용궁사를 비롯해 대광명사, 미타선원, 홍법사, 혜원정사, 관음사, 안국선원 시원암, 불암사, 해광사, 호국금련사, 내원정사, 대연정사, 원오사 등 13개 사찰이 함께하며, 약 300여 명의 스님과 재가불자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40여 분간 금강경 독송에 집중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방향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목종 스님은 "금강경은 자성을 밝히고 번뇌를 끊는 수행의 핵심"이라며 "우리말 독송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더욱 생생히 마주하고, 내면에 불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 고통 원인 다스리는 길 제시"

안양규 동국대 교수, 북콘서트서

"고통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불교는 그 생각을 통제하고 초월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철학과 현대 심리치료의 접점을 탐구한 연구서 '불교와 인지치유: 역기능적 사고와 그 해결'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가 6월 21일 경주 더케이호텔 신관 남산홀에서 열렸다.〈사진〉 이번 행사는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와 죽림회(회장 도연 스님)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안양규 교수(동국대 WISE캠퍼스)는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핵심 개념으로는 '오취온(五取蘊)'과 '우파다나(取)'를 소개했다.

안 교수는 "몸, 감정, 사고 등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고통이 발생한다"며 "이 잘못된 동일시를 끊어내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엄경 독경으로 지혜 증득을”

해인사 2차 완독법회 입재
6월 21일 보경당서 봉행
1590일 대장정 본격 시작
월 1회 총 53회 독송 진행


법보종찰 해인사는 6월 21일 보경당에서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완독대법회’ 입재법회를 봉행하고 4년 5개월, 1590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인사가 1590일간 〈화엄경〉을 완독하는 두 번째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6월 21일 보경당에서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완독대법회’ 입재법회를 봉행하고 4년 5개월, 1590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날 입재법회는 법계탑 앞마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보경당으로 옮겨 진행됐다.

화엄경 완독대법회는 〈대방광불화엄경〉 80권 전편을 총 53회로 나누어 매월 1회씩 독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인사는 지난 제1차 완독법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대중과 함께 경전 독송 수행의 원력을 세우며 불교 수행의 중심도량으로서 소임을 이어간다.

입재법회는 명고·명종 타고, 육법공양 봉헌에 이어 방장 학산 대종사의 헌향, 전계사 무관 대종사의 헌다, 주지 혜일 스님의 헌화로 시작됐다. 이어 청법게를 올린 뒤 학산 대종사의 입재 법어가 이어졌고 법회 휘호가 대중 앞에 전달, 낭독됐다.

방장 학산 대종사는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자체이며 우리는 지금 다시 그 지혜의 바다에 들어선 것”이라고 법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 짠맛 하나를 이루듯, 중생의 마음이 화엄 도량에 들면 복덕과 지혜가 충만해진다”며 “믿음 없이 깨달음도 없다. 형식이 아닌 신심으로 독송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종사는 〈대방광불화엄경〉 일곱 글자만 외워도 업장이 녹는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경전 이름만 외워도 복이 열리는데 전권을 독송하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지 혜일 스님은 환영사에서 “제2차 완독대법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법회는 부처님 지혜를 도량 가득 채우는 위대한 수행”이라며 “지난 1차 법회 경험을 바탕으로 80권을 53회로 나누어 보다 또박또박 읽고 새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빠짐없이 끝까지 동참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이신규 불자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무량한 지혜의 바다에 첫걸음을 내딛나이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경을 올리며, 화엄경 독송 수행을 시작합니다”라고 알리고 “세간의 삶을 받아들이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자비와 평화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법회는 입재의식에 이어 〈화엄경〉 첫 독송과 화엄천도의식, 시식, 회향의식으로 원만히 회향됐다.

한편, 법회에는 서울·부산·대전·대구·창원·진주 등에서 온 동참자들이 함께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불자들도 실시간으로 법회에 동참했다.

지자체 오락가락 행정에 용천사 수목장 준공 지연

함평군 민원봉사과는 “문제 없다”
가족행복과 “경내지 아니다” 해석
용천사 “자의적 판단에 사찰 피해”


함평 용천사에서 추진하는 ‘꽃무릇 수목공원’.

전남 함평의 전통사찰 용천사(주지 혜용 스님)가 조성 중인 ‘꽃무릇 자연수목장’이 준공을 앞두고 지자체 관할 부서의 자의적인 행정 판단에 가로막혀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용천사는 2023년 함평군의 개발 및 건축 허가를 받아 수목장 조성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공정을 모두 마친 상태다. 그러나 최종 준공검사 단계에서 함평군 가족행복과가 “해당 부지는 사찰 경내지가 아니므로 허가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천사 주지 혜용 스님은 “전통사찰보존법에 명시된 경내지의 법적 정의를 무시한 채, 일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전에 건축 허가까지 해 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입장을 뒤바꾸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용천사 측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찰 경작지로 용천사의 생활 및 종교 활동과 밀접히 연계돼 있던 곳이다.

혜용 스님은 “해당 부지는 사찰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주어 활용했던 공간으로, 사찰과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며 “도대체 이 땅이 경내지가 아니라면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경내지의 범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해당 부지가 위치한 함평군 광암리 마을에는 주민 약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4~5명의 주민이 사업에 반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행정소송은 모두 패소한 상태로, 법적으로는 사업 진행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용천사는 판단하고 있다.

혜용 스님은 “사찰은 단순히 수목장을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이곳의 영령을 기리고 지역 불자의 장례 복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수목장을 추진해 왔다”며 “때문에 잔디 대신 꽃무릇을 활용해 누구든지 힐링하며 머물 수 있는 공원형 자연장을 조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함평군 민원봉사과는 “관련 법령상 문제는 없으며, 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을 주민 설명회를 통해 밝힌 바 있고, “현재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협의기준’에서 ‘장사법’에 관련된 주무 부처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가족행복과에서 경내지 여부를 문제 삼아 허가를 미루는 상황에 대해 사찰 측은 “행정 내부의 이견으로 사찰에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용천사 꽃무릇 수목장 개장은 현재 연기된 상태. 혜용 스님은 지난 6월 22일 함평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군 측은 경내지 여부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해 협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혜용 스님은 “사찰과 주민, 그리고 행정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길 기대했지만, 정작 행정은 사찰의 역사성과 법적 근거보다 형식적 논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국민 행복’ 석남사 풍등, 밤하늘 수놓다

6월 22일 1000여 명 운집
덕운 스님 “국민 행복 담아”



한류 드라마 ‘도깨비’ 명소로 널리 알려진 안성 석남사가 국운융창과 국민 안녕을 기원하는 붉은 풍등을 밤하늘에 띄워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다.〈사진〉

안성 석남사(주지 덕운 스님)는 6월 22일 사찰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8회 서운산 소원 풍등 날리기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1000여 명의 불자와 시민이 모인 가운데, 참석자들은 각자의 서원을 담은 소원지와 함께 대형 풍등을 띄우며 나라의 안정과 모두의 평안을 발원했다.

석남사 주지 덕운 스님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은 풍등을 크게 만들어 모두의 근심과 걱정을 함께 날려 보내자”며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자.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소원에 집중하며 모두의 삶이 맑고 밝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개회식 이후 BBS만공스타즈 가수 구나운의 무대를 시작으로 트리오 그룹 ‘로투라’와 안성 출신 염기랑의 공연이 이어졌고, 발라드 가수 한경일과 기타리스트 정선호, 인디 가수 신현희 등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마지막 무대는 전자음악과 불교 경전을 접목한 뉴진 스님의 퍼포먼스로 장식됐다.

안성=노덕현 기자

수덕사, 하안거 반결제 승보공양·산행

6월 23일, 가야사지서
사부대중 600명 동참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을사년 하안거 반결제일을 맞아 6월 23일 가야사지에서 승보공양 법회를 열고 ‘백제의 미소길’을 걷는 반철산행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를 증명법사로 주지 도신 스님, 정혜사 능인선원 유나 현전 스님, 선덕 지운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을 비롯해 본말사 스님들과 결제 대중, 신도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수덕사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가야산을 지키고 청정 수행처로 후대에 전하겠다는 서원을 담아 ‘백제의 미소길’을 걷는 반철산행과 수행 중인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승보공양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방장 우송 대종사는 법문에서 “세상은 언제 어디서든 선불장이며, 반철산행은 납자에게 주는 필수 보약”이라며 “산길을 걷는 그 자체가 수행이고, 몸과 마음을 뒤집는 소용돌이를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로 반철산행은 19회, 승보공양은 14회를 맞았다”며 “특히 반철산행은 송전탑·골프장 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가야산을 지키기 위한 사부대중의 원력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덕사 신도회는 산행을 끝낸 사부대중에게 시원한 막국수를 공양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천연기념물 비단벌레, 표충사 자연 방사

(주)숲속의작은친구들
인공 증식 성공 ‘쾌거’



사회적기업 ㈜숲속의작은친구들(대표 최정민)은 6월 19일 경남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와 함께 비단벌레를 원서식지에 방사하며 본격적인 생태복원 사업에 돌입했다.〈사진〉

이번 방사는 2024년 체결된 ‘비단벌레 서식환경 보전 및 복원 업무협약(MOU)’의 첫 결실로, 지난해 표충사 일대에서 채집한 공시충(증식용 어미벌레)을 기반으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결과다.

비단벌레는 초록, 금색, 붉은색의 금속광택을 지닌 회귀성 곤충으로, 국내 개체 수가 극히 적어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 숲이 변화하고,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지구촌을 물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호원문화재단 ‘우리 多 함께 해You’ 성료

6월 22일까지 수덕사서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이사장 주경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이 6월 7일부터 22일까지 예산 수덕사에서 개최한 ‘우리 다(多) 함께 해유(You)’가 5회에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사진〉 사전예약한 12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소통하는 장으로 꾸려졌다.

21일 열린 4차 행사에는 26명의 다문화가족이 참가했으며, 수덕사의 역사와 문화 해설, 명상, 다도, 사찰음식 등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이사장 주경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불교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정신건강 돌봄 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현우 스님, 세종 광제사 주지)이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미지)와 함께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돌봄에 나선다.

두 기관은 6월 24일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세미나실에서 상호 협력 및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통문화 기반 심신 치유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협력 △전문 인력 교류 및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우 스님은 협약식에서 “현대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데 불교 전통문화가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완주 송광사, 다문화가족 템플스테이

6월 20~21일 26명 동참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 스님)가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송광사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완주군 가족센터 나눔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관내 다문화 가족 26명이 참가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송광사와 완주군 가족센터(센터장 오인철)의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송광사에서 사찰 예절 교육과 도량 탐방에 이어 사찰음식 공양, 타종, 걷기 명상, 연꽃 등 만들기, 단주 만들기 등의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탑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1000만원 전달

6월 25일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스님, 마이산 탑사 회주)가 진안지역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0만원을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전달했다. 또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 마이산 탑사 신도회,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도 동전 저금통 100개를 모아 함께 전달했다.

6월 25일 진안군 사통팔달센터 커뮤니티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사)붓다 총괄이사 현진 스님,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장과 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에서 모은 소원동전과 신도들의 정성으로 동전 저금통을 모아 진안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전달하게 됐다” 며 “작은 금액이지만 해마다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어 환희롭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기복서 ‘문화향유’로…혁신 통해 불교 경쟁력 확보를”

윤재웅 총장, 교수불자대회서
‘신팔정도 문화운동’ 제안해
언어 혁신 등 8대 혁신 제시
개막식서 종단 지도자들 축사
기후위기, AI 등 현안 논의

진부=신중일 기자




▲윤재웅 동국대 총장이 교수불자대회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와 월정사는 6월 24~26일 월정사 일원에서 ‘2025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개막식 이후 진행된 기념촬영.

“대만불교의 특성이 ‘인간불교’에 있다면 21세기 한국불교의 미래 가능성은 ‘문화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6월 24일 평창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개막한 ‘2025 한국교수불자대회’ 기조강연에서 한국불교 미래가 ‘문화불교’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불교의 준비와 대승보살의 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현재 한국의 2030세대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2030세대들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과 복을 바라는 ‘대가 보상형’ 지불 대신에 마음의 안정과 심미적 쾌감을 위해 ‘문화 향유형’ 지불을 선택한다”고 분석했다.

“‘불교문화 팬덤’이라는 세대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밝힌 윤 총장은 “특정 종교의 선입견에 물들지 않은 젊고 순수한 문화 교양인들이 소비와 향유의 대상으로써 불교를 만나려 한다는 점은 한국불교 전법사의 지평 전환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불교의 미래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은 한국불교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길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과 〈님의 침묵〉에서 보인 ‘만해유신’에 찾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팔정도 문화운동’을 제시했다.

윤 총장이 제시한 ‘신팔정도 문화운동’은 한국불교가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한 혁신 방편으로 △언어 혁신 △문화 혁신 △구성체 혁신 △생활 혁신 △제도 혁신 △세대 혁신 △학술 혁신 △공공 혁신의 8대 혁신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윤 총장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불교’로의 혁신을 제언했다. 윤 총장은 “지금부터 1200년 전에 팔만대장경을 압골한 개념 디자인을 내놓았는데 지금도 이것보다 탁월한 식견을 찾기 어렵다. 5천만 글자도 다섯 글자로 줄여 보면 결국 ‘착하게 살자’라는 뜻이다”며 “이런 식으로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대중화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역 경전 한글화 작업은 업데이트 버전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젊은이들이나 초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절한 안내서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게 윤 총장의 제안이다.

기존 포교 문법을 신도들을 위한 기복불교에서 중생을 위한 ‘향유불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참선, 명상, 사찰음식, 불교문화유산 등의 체험은 미래세대들로 하여금 기복적 자세에서 벗어나 불교문화를 공유·공감·향유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한다”면서 “불교문화 콘텐츠 갖는 경쟁력을 믿고 중생의 내면에 잠든 불심을 깨우는 ‘문화불교’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회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열어야 한다”며 “출근 전·후, 토요·일요법회 등 현대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법회를 열거나 법당 내 의자 배치, 도심사찰 공간 현대화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 앞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월정사 주지 스님과 주요 종단 지도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단순한 학술 모임을 넘어 지금 한국불교가 어디에 서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묻고 함께 길을 찾아가는 대승적 실천적 자리”라며 “이 자리에서의 모든 인연과 나눔이 미래불교의 새로운 문을 여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환영사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인한 청년 세대의 절망, 기후 위기의 심화, AI와의 공존 문제, 전쟁과 분쟁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교수 불자들의 소명이 실로 지대하다. 학문의 언어로 대중과 사회를 연결하고, 불교의 지혜를 미래세대와 호흡할 수 있는 언어로 재해석하며, 강단의 진리를 삶의 현장으로 이끄는 다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불교의 준비와 대승보살의 길’을 주제로 열린 올해 교수불자대회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간 월정사 일원에서 진행됐다. 3일 간의 대회에서는 웰다잉, 생명윤리, AI, 생태명상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 10편이 발표됐으며, 이번 대회는 한국불교가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왔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모색했다.

6월 25일에는 ‘대학생·청년 전법 특별 세션’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 출신으로 15세에 대만 불광산사에서 출가해 서울 불광산사 주지 소임을 하고 있는 혜호 스님을 초청해 ‘대만 불교의 청년 전법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강연 뒤에는 유주연 대불련 회장, 이수연 대불련 숙명여대 지회장 등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청년 전법의 현실과 과제를 대학생 입장에서 토론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전통의 지혜와 현대적 자비,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법문을 했다.

오대산서 만난 정념 스님·불자 교수, 묻고 답하다

교불련 주최 교수불자대회서 환영 차담 진행

교수들 불교 미래 진흥책 등 질의
정념 스님 “명상 지도력 필요”
한암 스님 등 오대산 가풍 소개도

“이제 한국불교는 새로운 시대 언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명상 수행을 축으로 한 공동체 기반의 신행운동, 연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생명 존중 가치 실천, 기후 위기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불교가 돼야 합니다.”

6월 24일 오대산 명상마을 수피타에서 열린 2025한국교수불자대회 환영 차담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밝힌 한국불교 미래 아젠다 중 일부다. 이날 차담에서 정념 스님은 신행과 수행, 한국불교 미래 진흥책 등에 대해 불자 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화엄경〉 속 보살행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정념 스님은 보살행의 핵심은 깨달음 이후의 실천에 있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깨달음이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보살행의 출발점”이라며 “깨달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민과 지혜로 세상에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분별심 속에 산다. 보살행은 분별심을 녹여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밝힌 정념 스님은 “집중과 통찰 수행을 통해 가슴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연민과 사랑, 공감이 바로 보살행의 근본”임을 거듭 강조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열매이며, 그것이 타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6월 24일 오대산 명상마을 수피타에서 열린 2025한국교수불자대회 환영 차담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불자 교수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월정사 명상마을 기획과 구상에 대한 질문에는 “명상마을 조성은 단순한 공간 건립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춘 불교 수행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고 밝혔다.

정념 스님은 “2004년 주지로 부임하며 불교 수행과 전법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명상마을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수행과 교육의 장”이라며 “명상은 힐링을 넘어선 공동체적 실천이 돼야 하며, 명상을 통한 내면 치유와 사회적 연대의 회복이 이 시대 불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위기 상황인 한국불교의 미래 진흥책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정념 스님은 “큰 방법이 없다”면서도 ‘심플한 불교’를 방안으로 제안했다. 복잡하고 형식적인 전통보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간명한 수행 체계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념 스님은 틱낫한 스님을 예로 들며 “걷기 명상이나 간단한 호흡 수행을 통해서도 수백 명의 출가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수행이 삶과 밀착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상은 이제 시대적 필요”라며 “종교의 틀을 벗어난 영성의 시대에 불교는 명상 지도력과 수행 콘텐츠로서 다시 대중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념 스님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암·탄허 스님 등으로 이어지는 오대산 수행 가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암-탄허 스님으로 이어지는 오대산 법맥의 핵심이 ‘선교일치’에 있음을 강조한 정념 스님은 “선교일치, 즉 교학과 수행의 균형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불교의 핵심”이라며 “수좌는 경을 보고 강백은 좌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두 선지식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진부=신중일 기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부처님 법 공부
석천사 진옥 스님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법륜의 사성제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 법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하였다.
진옥 설법, 범여 정리 및 교정/신국판양장/440쪽/값 28,000원

복장의식과 점안의식을 여법하게!
제불보살복장점안의식
전해오는 여러 의식들을 정리하여, 한문 원문과 한글음, 우리말 번역, 필요한 곳에는 설명까지 붙여서, 누구나 여법하게 의식을 거행할 수 있게 편집하였다.
원철 편저/사륙배판양장/464쪽/값 30,000원

서양 철학자와 동양 승려의 만남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서로 다른 전통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상가가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윤리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
피터 싱어 · 스자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신국판/284쪽/값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日반출 조선왕실 사당 '관월당' 환지본처

日고덕원 주지 반환 먼저 제안
조선왕실 사당 건축물로 추측
日기업이 1920년대 반출 추정
관음보살상 봉안 기도처 활용돼
2010년 韓불교 귀환 추진 시초
"한일 양국 협력으로 이룬 성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해체 전 일본 고덕원 위치 당시 관월당 모습.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조선시대 왕실 사당 건축물로 알려진 '관월당(觀月堂)'이 일본으로 반출된 지 약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은 6월 24일 관월당 소장자인 일본 고덕원(高德院, 주지 사토 다카오)과 약정을 체결하고, 보존·복원을 위해 해체 후 한국에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밝혔다.

해외에 있는 한국 건물 전체가 국내로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반환의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5월 당시 한일불교교류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일한불교교류협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관월당을 한국으로 돌려주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내 보수 우익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과 비판이 커지며 현실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2019년 고덕원 주지이자 게이오대에서 민족학과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토 다카오 교수가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에 연락해 오면서 반환 논의가 재개됐다.

지난해 반환이 최종 합의되자 관월당 건물을 해체한 뒤 부재를 순차적으로 한국으로 이송했고, 이송된 모든 부재는 현재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해 관리 중이다. 해체 후 부재는 석재와 철물 8건 401점, 기와 12건 3457점, 목재 74건 1124점에 이른다.

관월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을 지닌 목조 건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18~19세기경 지어진 조선 왕실 사당으로 추정된다. 경복궁 내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라 송현동과 통의동 등 세 군데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1870~1939)에게 기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월당은 일본 도쿄로 옮겨졌고 1930년대에는 스기노 기세이가 가마쿠라시의 고덕원이라는 사찰에 기증하면서 고덕원 경내로 이전돼 해체 전까지 관음보살상을 봉안한 기도처로 활용돼 왔다.

관월당의 국내 귀환은 소장자인 사토 다카오 고덕원 주지가 원소장처인 한국에서 보존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사토 다카오 주지는 사찰 경내에 소재한 한국 문화유산에 큰 관심을 두고 한국 측에 연락해 왔으며, 이후 국가유산청과 국외재단은 관월당 보존을 위해 다년간 신뢰를 축적하면서 연구조사, 단청 기록화 및 보존처리, 정밀실측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각 사업은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이해가 깊은 한국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등 한일 공동 협업 프로젝트의 형태로 이어졌다.

해체와 운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며 관월당 귀환을 이끈 사토 다카오 주지는 6월 24일 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된 언론공개회에서 "한국과 협업을 통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다 분명히 규명했고 최적의 보존을 위해 관월당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을 알게 됐다"면서 "관월당이 지난 100년 간 고덕원에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한국 내 본래 장소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관월당 귀환은 소장자의 진정성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프로젝트"라면서 "문화유산을 매개로 상호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실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관월당에 대한 정확한 용도와 위치를 확인한 뒤 국내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물로 지정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청도 운문사 소장)

운문사 소장 불교 경전 목판들 보물됐다

국가유산청 6월 20일 지정 발표
'사찰 소장 유산 일제조사' 성과

청도 운문사에 소장 중인 목판 4건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청도 운문사 소장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치문경훈' 목판 4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한다"고 6월 20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청도 운문사 소장 목판 4건은 국가유산청과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성보문화유산의 가치 발굴과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유산 일제조사' 사업을 통해 지정이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4건 중 제작 시기가 가장 빠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은 1515년(중종 10년) 조성된 목판으로, 총 33판 완질이다. 각선(覺禪) 선사의 주도 아래, 처호(處浩)가 목판을 제작하고 최호(崔浩)가 글자를 새겨 만들어졌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은 1588년(선조 21년) 〈원각경〉에 해설을 더한 〈원각경약소(圓覺經略疏)〉를 토대로 조성된 목판으로, 총 104판 완질이다. 석헌(釋軒) 선사의 주도 아래, 도림(道林)이 글을 쓰고 지희(智熙)가 목판을 제작한 후 인헌(印軒) 등이 글자를 새겨 조성됐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은 1588년(선조 21년) 조성된 목판으로 총 37판 완질이다. 석헌(釋軒) 선사의 주도 아래, 도림(道林)이 글을 쓰고 지희(智熙)가 목판을 제작한 후 의련(儀璉) 등이 글자를 새겨 조성됐다.

'치문경훈 목판'은 1588년(선조 21년) 조성된 목판으로 총 90판 완질이다. 홍인(弘印) 선사의 주도 아래, 도림(道林)이 교정하고, 종원(宗元)이 목판을 제작한 후 법천(法天) 등이 글자를 새겨 만들어졌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불교교육학' 연구기관 건립한다

건학위 기본기관장 회의서
불교학술원 설립 계획 보고
총장 추진 사업, 9월 개소

동국대가 불교교육학 전문 연구기관 설립에 나선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6월 25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1차 건학기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5대 공통의제 관련 사업 경과와 계획 등을 보고·공유했던 이날 회의에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 이하 학술원)은 산하 연구소 건립계획을 밝혔다.

건립 추진되는 연구기관은 '불교교육연구소'로,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화 및 실용화해 이를 교육학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소 설립은 장환영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학과 교육학을 접목해 새로운 승가·신도교육, 전법론을 개발하는 '불교교육학' 정립은 윤재웅 동국대 총장의 역점 추진 사업이기도 하다. 실제 윤 총장은 6월 24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린 '2025 한국교수불자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불교교육학'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윤 총장은 '불교 혁신' 방안 중 하나로 불교교육학 체계 구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 불교학과 교육학은 세밀하게 발전했는데 불교교육학 분야는 아직 싹도 트지 않았다"고 지적한 윤 총장은 "승려교육부터 비불자 대상 교육까지, 교리교육부터 전법 방법론까지 불교교육학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면서 "불교교육학은 청년전법의 지속가능한 엔진에 해당된다. 만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제일 걱정한 분야가 승려교육이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원은 "'불교교육연구소'를 오는 9월 중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이라며 "'불교교육학'을 하나의 독립적 학문 분야로 정립해 혁신적 전법 전략을 구축하고 미래지향적 불교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동국대 출판문화원은 지난 4월 29일 봉정한 〈불교사전〉이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 탑재돼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음을 보고했으며, 네이버 사전 검색 서비스 연동 추진 계획도 밝혔다. 출판문화원은 "지난 6월 12일 네이버 사전검색팀과 화상 회의를 통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교사전〉 노출방안을 논의했다"며 "현재 네이버가 운영하는 '오픈사전 Pro'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되면 곧 제2회 영캠프가 열린다. 올해도 9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영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서울캠퍼스 2500명, WISE캠퍼스 1800명이 수계를 받았다. 올해 영캠프에도 많은 청년들이 수계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 창립학술대회

7월 5일 國博 소강당서…소장에 정각 스님

불교미술을 중심으로 아시아 종교 전통 미술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소가 창립했다.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소장 정각 스님)는 7월 5일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창립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는 불교미술과 아시아 종교 전통미술 등을 연구하는 학술공동체로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정각 스님이 초대 소장을 맡았으며, 김연미(이화여대)·신광희(충북대)·엄기표(단국대)·서지민(충북대)·이승혜(동아대)·김현중(전남대)·김자현(동국대) 교수 등 전문학자들이 함께 한다.

아시아 종교미술에 대한 융합적 시각과 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번 창립학술대회에서는 유진왕 하버드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의 '불교미술의 미래는 무엇인가'와 행크 글라스만 하버포드 칼리지 아시아 연구 석좌교수의 '일본에서의 성불(成佛): 불교 장례의례와 오륜탑형 예복만다라' 기조연설로 문을 연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장 정각 스님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아미타삼존불상(1333년) 복장 발원문과 다라니-고려시대 연기법송의 사용과 티베트불교 복장 규범의 차용' △신광희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의 '극락으로 가는 여정, 여성, 그리고 한글: 조선조 전기 안락국태자경변상도' △김연미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의 '해양 및 영적 지형과 신라불교 건축'이 발표된다.

신중일 기자

범어사 중심 부산독립운동사를 만나다

부산박물관 '광복의 시간'展
6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범어사 등 불교독립운동 조명



부산박물관은 6월 20일 기획전시실에서 '광복의 시간, 그날을 걷다: 부산의 독립운동과 범어사' 특별전의 개막식을 열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부산박물관에서 막을 올렸다. 전시는 일제강점기 부산의 독립운동과 함께, 불교계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던 범어사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부산박물관은 6월 20일 기획전시실에서 '광복의 시간, 그날을 걷다: 부산의 독립운동과 범어사' 특별전의 개막식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6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56일간 이어지며, 항일운동의 거점 도시로서의 부산, 그리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불교계의 행보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개막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과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BBS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BBS부산불교방송 사장 원허 스님 등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은 축사에서 "이 전시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후세를 위한 정신의 등불이 될 것"이라며 "불법을 지키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일이 다르지 않음을 절 안팎에서 온몸으로 실천했던 그날의 외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에도 자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범어사의 정신이 전시를 통해 온전히 전해지길 바란다"며 "한국불교의 수행자로서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도 깊은 감동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1부 '군막사찰에서 선찰대본산으로'는 지역 대표 사찰로서의 범어사 역사와 수행 전통을 다룬다. 2부 '부산 독립운동의 요람, 범어사'는 일제의 침탈에 저항했던 스님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한다. 3부 '부산의 함성, 대한독립만세'에서는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약과 대표적인 항일투쟁 사례들을 소개한다.

주요 전시물로는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 유묵', 백용성·한용운 스님 관련 유물, 오성월 스님의 행적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조선독립신문', 백범 김구의 친필 편지, 서영해 지사의 타자기 등 당시 시대상을 보여 주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관람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특히 범어사 돌담길을 모티프로 한 공간 연출은 현장감을 더한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개방되며,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051-610-714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韓불교학회, 성운학술상 시상식·학술대회

6월 24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자현 스님)가 6월 24일 서울 동국대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제8회 성운학술상 시상식 및 성운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2018년 제정된 성운학술상은 (사)한국불교학회 제22대 회장을 역임한 서울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의 발의와 재정지원에 따라 한국불교 염불신앙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그 학문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한국불교학회장 자현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기도와 가피 등 염불신앙은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근본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를 알리고 학술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불교학회가 학문과 더불어 신행까지 선도하는 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도 축사에서 염불신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성운 스님은 "역사적으로도 불교가 억압 당할 때 염불가피에 의지해 살아왔다. 한국불교가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이 땅에 부처님 등불이 켜지려면 염불가피 신앙운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5~7/1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생전예수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출판사
2	그날 나는 붓다를 보았다	이재용	불광출판사
3	조계고승전	백운	불교신문사
4	붓다경영(지속 가능한 공생적ESG)	선지	담앤북스
5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6	천년고찰 이야기	최종걸	다우
7	틱낫한 기도의 힘	이현주 옮김	불광출판사
8	원각경	김현준	효림
9	선생님 지도에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	노승대	불광출판사
10	THE TIMELESS WISDOM OF KOREAN SEON MASTERS	윤청광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2	생활속의 반야심경	김현준	효림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4	숫타니파타-붓다의말씀	퇴현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5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불경언어학(경성대한국한자연구소번역총서4)불경언어로 떠나는 여정	축가녕	역락
7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8	업설지장경(현대의영험록수록)	신춘열 엮음	광륵사
9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대장경의절반은윤회에대한교설이다!	석윤광 지음	운주사
10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길을 걷다 멈춘 곳에 이야기가 있다



선생님, 지도엔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

노승대 지음

불광출판사 / 3만2000원

42년 답사가 노승대의 '인생 장소'

안내문에 없는 문화유산 뒷얘기

"길 위의 박물관, 우리 땅 인문학"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삼척 천은사의 동안사(動安祠)와 완주 화암사의 철영재(啜英齋). 두 사찰은 어쩌다 고려·조선의 관리를 모시는 사당을 두게 되었을까?

고려 후기의 문신 이승휴는 천은사에서 역사서 〈제왕운기〉를 집필했다. 불교에 우호적이었던 그는 호를 '동안거사(動安居士)'라 짓고 용안당에 머물며 정진했다. 후일 그는 용안당을 간장암(看藏庵)으로 바꾸고 토지를 절에 희사했다. 간장암이 있던 곳이 지금의 천은사 구역이라, 1995년 이승휴를 기리는 사당인 '동안사'가 지어진 것이다.

완주 화암사의 철영재는 여말선초의 무신 성달생의 위패를 모신 건물이다. 사육신 성삼문의 조부인 성달생은 쇠락해 가던 화암사를 중창한 것은 물론 경전을 많이 필사해, 스님들이 이를 목판으로 만들어 인경(印經)했다. 특히 조선시대에 출간된 〈법화경〉은 거의 성달생의 글씨를 판각했다고 할 정도로 완주 화암사는 불경 간행의 중요 사찰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내 들려주는 책 〈선생님, 지도엔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가 출간됐다. 저자는 답사가 노승대 작가. "책상머리에서 글쓰지 마라"는 스승의 당부에 직접 문화유산을 찾아 나선 그가 지난 42년간 전국을 두루 답사하며 발견한 '내 인생의 장소'를 소개한 책이다.

책에는 강원도 삼척, 전북 완주, 경북 안동, 충남 서산, 경기도 여주 등 16개 지역의 명승지와 고적, 문화유산에 서린 시간과 기억, 정서를 담았다. 김천 답사에서는 고려 왕건과 인연이 깊은 직지사를 시작으로 온돌을 갖춘



삼척 천은사 경내의 동안사. 매년 이승휴를 기리는 동안대제가 봉행된다. 사진제공=불광출판사

특이한 구조의 정자 방초정을 지나, 숙종의 비 인현왕후가 3년간 머문 청암사를 만날 수 있다. 이어 청암사 계곡에 새겨진 '최송설당'에 머문 시선은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가문을 복권한 최송설당의 인생 여정과 그가 세운 김천고등보통학교(현 김천고등학교)로 발길을 이끈다.

인터넷이나 문화유산 안내문에서는 접할 수 없는 '살아 있는 역사'를 찾기 위해 마을 한 귀퉁이에 자리한 돌장승에 눈길을 보내고, 사람이 찾지 않아 풀이 무성한 절터에 숨겨진 사연에 귀 기울인다.

저자는 "고려시대 건축물은 어떻게 냉혹한 역사를 견디고 살아남았는지, 국보급 승탑은 어떤 사연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게 되었는지 등 문화유산을 보며 일어난 의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려 노력했다"며 "답사를 갈 때나 관련 문화유산을 알고 싶을 때 참고 도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승대 작가는 1975년 입산해 광덕스님을 은사로 모시다 10여 년 뒤 하산하고 '우리 문화'를 찾아가는 또 다른 구도의 길을 걷고 있다. 조자용 에밀레박물관장을 사사하고, 1993년부터 문화답사모임 '바라밀문화기행'을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수행자의 눈으로 본 일상 번뇌



안달하지 마라

송월 스님 지음

군산인쇄사 / 2만원

2년 연재한 칼럼 모은 첫 에세이

"마음 살피고 항복 받는 것이 수행"



군산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이 첫 에세이집 〈안달하지 마라〉를 출간했다.

지난 2년간 지역 언론 '새군산신문'에 연재한 칼럼을 엮은 것으로, 일상에서 겪는 번뇌와 괴로움을 수행자의 시선으로 풀어냈다.

송월 스님은 "지나간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보고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성냄을 조절하고 번뇌를 줄이고 욕심을 다스리며 사는 삶이 곧 행복의 길"이라고 수행자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책 전반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선용기심 항복기심(善用其心 降伏其心)'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쓰고 그 마음을 항복 받는 것이 수행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스님은 "필자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간직해 온 삶의 단상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대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라고 출간 소회를 밝혔다.

송월 스님은 1956년 정읍에서 태어나 1982년 출가했다. 태고종 중앙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원광대 동양학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했으며, 필리핀 국립 이리스티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국립 군산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이자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군산·전주교도소 교화위원 소임을 맡고 있다. 군산 성흥사 회주로 지역 포교와 불자 교육에 진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선과 무소유〉, 〈법화경 핵심 사상〉, 〈108 달마도와 진리〉 등이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로 나온 시집

제42회 성파시조문학상 수상작 수록



성파시조문학 제3호

성파시조문학회 엮음

도서출판 통도

1만원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뜻을 이어 제정된 성파시조문학상의 수상작과 회원 작품을 담은 책이다. 제42회 성파시조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김소해 시인의 〈서너 백 년 기다릴게〉 중 '찔레꽃 명당' 외 1편, 문학상 수상작인 김정수의 '오동나무 켜다' 외 1편과 이선중의 '해금처럼' 외 1편, 작가상 수상작인 서동운의 '겨울 낚시' 외 1편과 서은숙의 '고드름' 외 1편 등이 실려 있다. 회원들의 시조와 평론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문학상운영위원장 서송 스님은 "지난 40여 년이 시조 문학의 계승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시조 문학의 꽃을 피워나갈 과정"이라고 말했다.

글과 사진으로 만나는 춤꾼 이애주



이애주 춤 사진첩 천명

윤영옥 · 김여정 엮음

개마서원

12만원

춤꾼 이애주의 삶과 예술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작품집이다. 이애주 선생이 자신의 삶을 '법무의 시대', '신명의 시대', '터벌림의 시대', '천명의 시대'로 일컬은 순서에 따라 수많은 공연 기록과 사진, 글 등을 가려 담았다. 화가 오윤, 홍성담 등의 작품과 백기완, 고은, 신경림, 김지하의 글, 평론가 윤중강의 추모사 등도 담았다.

유홍준 이애주문화재단 이사장은 "이 책이 희대의 춤꾼 이애주의 춤 세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애주문화재단은 그간 〈이애주의 춤 생각〉과 〈승무의 미학〉 등을 펴냈다.

유물들이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역사가 쉬워지는 박물관 답사여행

이연민 지음

맘에드림

2만1800원

"왕흥사는 대체 누가 지은 절일까?" "불교는 신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저런 궁금증이 끊이질 않는다. 이 책은 미술관, 과학관, 기술관, 공립 기록보존소 등 넓은 의미의 '박물관'에서 만난 유물들을 마중물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옛날이야기처럼 재미있게 읽는 동안 각 시대의 특징, 삶의 태도, 가치관, 문화 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자 이연민은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넘게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는 한편, 체험학습연구회 (사)모아재에서 우리나라 박물관 및 유적지를 답사하고 있다.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불교정화운동 주역 청담 스님 연구 집대성



청담연구
김광식 지음 / 청담사상연구소 기획
도서출판 중도 / 2만5000원

배희정 객원기자 hbpress@hyunbul.com

청담 대종사(1902~1971)는 조계종 총무원장, 장로원장, 종정 등을 지내며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스님은 불교정화운동 당시 이론과 방향을 수립하고 1955년 8월 전국승려대회를 주도했다. 정화운동이 일단락된 뒤에는 재건된 조계종단의 총무원장을 맡아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을 주도했다.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주역' 청담 스님의 발자취를 재조명한 연구서가 나왔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지난 20년간 발표한 청담 스님 관련 논문 13편을 묶은 〈청담 연구〉다.

청담사상연구소가 기획한 이 책은 불교정화운동이 단순히 종단 차원의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불교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신행 문화 정립을 지향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새롭게 환기한다.

또 정화 과정에서 빚어진 다양한 논쟁 속에서도 전통적 수행법을 바탕으로 시대적 혁신을 이끌었던 청담 스님의 발자취를 조명함으로써, 오늘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책은 청담 스님의 생애와 불교정화운동을 조명한 1부, 사상과 대안을 다룬 2부로 구성됐다.

김광식 교수는 청담 스님을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주역", "상구보리·하화중생 하는 본연의 자세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끈 큰 스님"이라고 규정하고 스님의 생애, 불교사상, 공적 활동, 불교정화운동의 개요와 배경 등을 기술한다.

김광식 교수, 20년 연구 망라
청담 스님 생애 · 정화운동 조명
"스님의 이상은 구국제세 불교"
"민족불교 재건한 위대한 보살"

청담 스님의 종단 탈퇴는 "불교 근대화를 추구하겠다는 옹골찬 결의이자, 종단 개혁을 추구하기 위한 고뇌의 결단"이며, 50년간의 수행 과정 전체가 '불교정화운동'이라고 평가한 김 교수는 스님의 불교정화 이념이 지성불교·수행불교·승단정화·민족불교로 이어졌다고 서술한다.

나아가 청담 스님이 교단·승단·신도 정화를 추진 방향으로 삼고, 이를 위해 도제 양성·포교·역경 등 3대 지표를 내세운 과정을 조명한다.

특히 청담 스님이 1954년부터 1969년까지 16년에 걸쳐 불교정화를 위해 헌신한 모습에 대해 "그의 행보는 민족불교 재건운동이었다"고 평한다.

이와 함께 청담 스님이 "인격적인 불교인의 양성, 민족과 함께하는 불교, 나아가 평화로운 세계 창조에 기여하는 한국불교"를 강조했다면서 그의 이상적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구국제세(救國濟世)'라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치열한 수행 속에서도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고 불교를 위한 어떠한 고난도 감수했던 청담 스님을 '위대한 보살'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청담 스님의 지성은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이 처한 위기에도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말한다.

이어 "이번 책은 지난 연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는 의지의 산물"이라면서 "청담 스님 관련 분야에 활용되고 청담 정신이 불교계에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했던 청담 스님의 고뇌와 활동을 재조명함으로써, 오늘날 한국불교가 청담 스님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구현해야 할지 성찰하게 한다.

'승만경'에 담긴 대승불교 본질 읽다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의
지안 스님 강설
운주사 /1만3000원

대강백 지안 스님의 〈승만경〉 해설
"여래장 · 일불승 사상 담긴 대승찬탄경"

한평생 승가 교육자로 후학을 양성해 온 강백 지안 스님(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이 수많은 경전 중 유일하게 여성이 설하는 경전인 〈승만경〉을 풀이했다.

〈승만경〉은 유마거사(維摩居士)가 설한 〈유마경(維摩經)〉과 함께 재가불교에 의해 설해진 드문 경전으로, 우바이 승만 부인과 부처님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된다. 특히 승만 부인이 정법을 수호하겠다는 장렬한 의지를 드러낸 십대 서원이 널리 알려져 있다.

지안 스님은 "대승 정신을 강조한 데 있어 〈승만경〉을 능가할 만한 경전이 없다"며 "대승의 올바른 진리를 드러낸 '대승찬탄경'"이라고 소개한다. 지난 2022년 본지에 〈승만경〉 강의를 연재한 바 있는 스님은 "신심과 신행 의지를 고취하고, 대승 교법을 이해하기 위해 꼭 권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승만경〉을 새롭게 번역하고 해설을 곁들였다.

책은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경본을 토대로 원문을 '여래진실공덕장', '십대수장', '삼대원장' 등 15장으로 구성했다. 승만 부인이 세운 대서원(大誓願), 보살로서의 이타행 맹세, 사성제의 이치 등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고 핵심 내용에 해설을 덧붙였다. 다른 해설서와 달리 단순한 내용 번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안 스님의 강설을 실어 독자들의 불교적 이해를 돕는다.

지안 스님은 〈승만경〉이 '모든 중생이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여래장(如來藏), '성문, 연각, 보살의 가르침은 결국 일불승으로 귀결된다'는 '일불승(一佛乘)' 등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스님은 강설을 통해 "대승에 의해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이 비롯됐다는 주장은 〈법화경〉의 대의인 '회삼승 귀일승'의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한다.

스님은 "올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나쁜 법에 빠진 사람들을 교화하겠다는 승만 부인의 지극한 서원은 여래장, 즉 우리 마음속 부처의 씨앗을 싹틔운다"며 "이 경전은 불교 신행의 모범을 보여 주기에 현대인들이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꼭 읽어 보기를 권한다"고 당부했다.

지안 스님은 1970년 통도사로 출가해 통도사강원을 졸업했다. 이후 40여 년간 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에서 경전을 강의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과 교육원 역경위원장, 은해사승가대학장,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장, 서울불학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금강경 강해〉, 〈대승기신론 신강〉, 〈선가귀감 강의〉, 〈처음처럼〉, 〈선시산책〉 등이, 역서로 〈왕오천축국전〉이 있다. 산문집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산사는 깊다〉, 〈안부〉 등을 펴냈다.

배희정 객원기자

철학자와 스님의 윤리적 쟁점 대담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피터 싱어 · 스자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
운주사 / 2만원

세계적 윤리학자 피터 싱어 교수가 낙태와 생명윤리 등 다양한 윤리적 쟁점을 두고 대만의 비구니 스님과 나눈 대담이 책으로 출간됐다.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는 피터 싱어 교수가 대만의 사회운동가인 스자오후이 스님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나눈 윤리적 대화를 담은 책이다.

피터 싱어 미국 프리스턴대학교 교수는 1975년 저서 〈동물 해방〉을 통해 서구 동물권 운동의 기틀을 다지고 '효과적 이타주의'를 강조해 온 철학자다.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쾌락과 고통의 계산'을 기준으로 바라보며,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윤리적 실천 운동을 제안해 왔다. 2021년 '철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베르그루엔상을 수상했다.

스자오후이 스님은 대만 불교홍서학원 설립자로 동물 보호, 사형제 폐지, 여성 및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 등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수행자다.

임신 중절 · 안락사 · 성전환 등 윤리적 담론으로 미래 성찰

이 책은 두 사람이 2016년 대만 보리선원에서 열린 동물 복지 세미나에서 만난 후, 5년에 걸쳐 이메일과 화상 통화로 주고받은 대화를 엮었다. 섹슈얼리티, 배아 연구와 임신 중절, 안락사와 자살 등 주요 윤리적 쟁점에 관한 각자의 입장과 견해를 대화로 풀어간다.

임신 중절 문제에 대해 스자오후이 스님은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례를 들며 "여성마다 처한 정신적·신체적 상태,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피터 싱어 교수는 "스님은 임신 중절을 정당화하기 위해 매우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저는 의식이 없는 배아나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안락사 문제에 대해 스자오후이 스님은 "불교에서 안락사는 권장되는 선택은 아니지만, 불치병 환자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환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죽음뿐이라면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피터 싱어 교수 역시 "정신적 능력이 있는 환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의학적 도움을 원한다면, 법에 따라 의사가 조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성전환 문제에 대해 스자오후이 스님은 "부처님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피터 싱어 교수는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신을 다른 성별로 식별하는 이가 많다"며 생리학적 혹은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는 '개인적 성별 식별과 별개'라는 태도를 보인다.

책은 두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입장을 나누고 경청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스자오후이 스님은 피터 싱어 교수를 "대승경전에서 튀어나온 보살과 같은 존재"라고 평하고, 피터 싱어 교수 또한 스님을 "세상의 고통과 불의를 줄이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함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칭한다.

서로 다른 전통과 언어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두 사상가의 다양한 윤리적 담론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찰과 탐구의 장을 마련한다. 피터 싱어 교수는 "윤리의 본질에 관한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양한 관점을 찾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희정 객원기자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最古)의 다경(茶經),
한재 이목의 「다부(茶賦)」!

수행자이자 다인(茶人)인
원학 스님의 해설로
차의 진면목을 만나다!



초의 선사의 『동다송』보다도 340여 년 앞서 차의 미덕을 예찬한 「다부」
그 속에 담긴 차향을 수행자의 삶에서 되살리다

「다부」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던 한재 이목이 차와의 인연, 차의 미덕 등, 차에 대한 의견을 써내려간 부(賦, 무언가를 아름답게 그려내는 문체의 글)이다.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는 차를 수행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해 온 우리 시대 최고의 다인(茶人)이라 할 수 있는 원학 스님이 「다부」를 옮기고 풀어낸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차분한 차향 속에 잊힌 정신성과 수행의 지혜를 다시 불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

한재 이목 지음 | 삼이 원학 스님 번역·해설
224쪽 | 양장 | 22,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생명나눔실천본부 “캄보디아 아이들 꿈 응원”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7. 생명나눔 ·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시엠립 고아원 방문 현장 下

6월 11일, 아동 40명 거주시설에
다양한 후원물품 · 태권도복 선물
태권도 시범으로 눈길 사로잡아

일면 스님 “희망 씨앗 되길” 염원
한명우 대표, 한 명 한 명에 염주
마하무용단 즉석서 후원금 전달도

캄보디아 시엠립=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6월 11일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한 고아원에 방문,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일면 스님은 이날 생명나눔의 방문이 물질적 지원을 넘어 캄보디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6월 11일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한 고아원에서 국경을 초월한 나눔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소외된 아이들에게 자비 손길을 내밀었다. 이날 방문에는 한국청소년연합회 총재 선일 스님,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이사, 정현숙 마하무용단장과 단원들, 성명용 한국집 대표, 박범진 (사)세계행복나눔태권도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이 방문한 고아원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4세부터 18세까지 40명이 생활하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아동 3명이 거주하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함께 의료 재활 서비스 등이 절실한 곳이다. 캄보디아 시엠립에는 34개의 고아원이 있지만 정부지원을 받은 곳은 이날 방문한 고아원 한 곳 뿐이다. 지원이 늘 부족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원장 포함 6명의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후원을 더 받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아동들이 원한다면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장학금 모연에도 힘쓰지만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이날 한국에서 온 손님들로 고아원은 모처럼 활기가 넘쳐났다. 이들은 한국에서 준비해 온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아동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후원물품에는 다양한 학용품을 비롯해 인형, 체육용품 등이 담겼다.

특히 이날은 (사)세계행복나눔태권도에서 아동들의 건강한 삶을 발원하며 태권도복 50벌을 선물해 아이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무더운 날씨를 감안해 반팔 반바지로 제작된 태권도복이다. 세계행복나눔태권도는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태권도를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봉사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 단체다. 해외 저개발 국가 아이들과 국내 소외 계층 아동들에게 태권도 교육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말라위와 부르키나파소 등 아프리카 빈곤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태권도 관련 재능 기부로 각종 축제와 문화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아름다운 춤사위로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준비한 후원물품에는 다양한 학용품을 비롯해 인형, 체육용품 등이 담겼다.



물품 전달과 함께 태권도 시범이 열려 아동들은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는 장애 아동에게 염주를 선물하며 부처님 가피가 함께하길 염원했다.



일면 스님은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유학오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박범진 세계행복나눔태권도 회장이 먼저 직접 발차기와 격파를 보이자 아동들 입에서 “와우” 하는 감탄이 쏟아져 나왔다. 박범진 회장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라고 소개하며 “발차기를 중심으로 손과 발, 기타 신체부위를 이용해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박 회장의 태권도 시범을 유심히 살핀 아동들은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발차기를 따라 하며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졌다. 특히 힘껏 기합을 넣으며 준비 자세를 취하는 모습에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아동들이 태권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본 한국청소년연합회 총재 선일 스님은 “아동들이 태권도 하면 대한민국을 떠올릴 수 있겠다”면서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태권도도 익혀 꼭 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일면 스님은 “오늘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방문으로 전달된 학용품과 도복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캄보디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아동들이 훌륭하게 자라나서 캄보디아의 큰 일꾼이 되길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 후 일면 스님과 동참자들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하며 한 명 한 명의 손목에 염주를 끼워줬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유학오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도 중증 장애 아동에게 염주를 선물하며 부처님 가피가 함께하길 염원했다. 마하무용단은 즉석에서 고아원에 후원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사는 캄보디아 주민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원활한 학업을 위해 2차 공동모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될 모연금은 학용품과 의류, 의료물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지원 물품 학용품, 신발, 의료물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후원 문의 02)2004-8214 2차 현지 방문 2026년 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25 삼독심서 자유로워지기



▶한줄 요약
기도와 보시는 삼독심을 줄이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마음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면 내 마음의 업이 정화되고, 좋지 않은 장애가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보시로 마음의 업을 녹여라

> 내게 생기는 모든 일들은
> 업 모양에 따라서 나타나
> 업 클수록 악연도 따라와
> 기도, 삼독심 줄이는 수행

[오늘의 명상]
무지개 화려해도 허공은 물들지 않고
관운장 검이라도 물은 베지 못하네.
허공같이 물같이 이 마음 그러하면
밉고 싫은 자국일랑 남을 리가 없으리.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이 인연에는 필연(必然)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사주팔자라는 역학도 결국 이러한 인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한 방법일 뿐입니다.

불(佛)과 보살의 마음에는 밉고 고운 감정이 없습니다. 무정(無情)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은 업(業)의 분별심에서 자유롭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모두 사라진 상태이니 이를 중도(中道), 적멸(寂滅), 반야(般若), 대자비(大慈悲)라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 중생의 마음은 정(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이 동전의 앞뒤처럼 함께 따라다닙니다. 이 감정들은 중생의 업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마다 업의 무게가 다릅니다. 업의 양이 적은 사람은 좋은 업을 가지고 있어 마음이 평온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업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무거운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가며, 즐거움과 괴로움의 강도 또한 크고 깊습니다.

좋은 사람이나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좋은 업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며, 나쁜 사람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자신의 나쁜 업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업의 결과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와 시비를 벌이고 화를 낼 때, 우리는 사실 자신의 업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업과 싸우며 괴로움을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악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업이 없는 불(佛)의 입장에서는 그가 악인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재세시(在世時) 마왕 파순과 제바달다의 방해를 받으셨지만, 조금도 감정이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내지 말라,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감정을 일으킬 때마다 새로운 업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화를 내면 화를 낼 일이 다시 생기고, 싫은 감정을 내면 그것이 업이 되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탐진치(貪嗔痴),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삼독심(三毒心)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생기는 모든 일은 내 마음의 업 모양에 따라 나타납니다.

마음의 업이 작을수록, 즉 삼독심이 작을수록 좋은 사람과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삼독심이 많을수록 만나는 사람과 일이 나쁜 인연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나의 삼독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와 보시는 삼독심을 줄이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마음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면 내 마음의 업이 정화되고, 좋지 않은 장애가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보시로 마음의 업을 녹이고, 삼독심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좋은 인연과 좋은 일이 찾아오는 길은 마음의 업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명상]
마음이 그물에 걸렸을 때는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 말라.
움켜쥔 것을 놓고 놓아 비우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리니.

존재하는 모든 것을 유위(有爲)라 합니다. 유위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업(業)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유위는 무위(無爲)의 반대 개념이니, 공(空)을 깨닫지 못하면 그물에 걸린 마음과 같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유위와 무위의 양변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공(空)이라 하는데, 말이나 문자로 이를 표현하려다 보니 억지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공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공 아닌 것이 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야(晝夜)가 바뀌듯 서로 교차하며 윤회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음, 두 감정이 서로 엇갈리며 업의 작용으로 생로병사(生老病死)와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전지전능한 힘도, 권력과 명예도, 부와 아름다움도 이 반복의 그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낼수록 더 빠르게 돌기만 할 뿐,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그물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감정 또한 이 그물에 걸려버립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이성을 따라가려 하지만, 감정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수억 겁에 걸쳐 쌓아온 업장(業障)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의 해결만을 바라며 몸부림친다면, 아래턱을 빼서 위턱에 맞추는 격이니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집착을 버리고 움켜쥔 것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얽히고 혼란스러울 때, 놓음(방하착) 선명상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으로, 결국 공(空)한 상태로 돌아가게 합니다. 집착과 욕심이 사라지면 그물에서 벗어난 바람처럼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옹 선사께서도 비우고 놓아버리는 삶을 다음과 같은 시구로 가르치셨습니다.

靑山兮要我以無語 (청산혜요아이무어)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蒼空兮要我以無垢 (창공혜요아이무구)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욕심을 내려놓고 고요히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시비(是非)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성냄도 내려놓고 탐욕도 비워야 합니다. 욕심과 감정은 마음을 얽어매는 족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聊無怒而無惜兮 (요무노이무석혜)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聊無愛而無憎兮 (요무애이무증혜)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으라.

이런 마음의 상태는 물과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모든 존재가 공(空)하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나의 감정과 집착을 흘려보내고 공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如水如風而終我 (여수여풍이종아)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무심(無心)한 마음을 유지하면 세상의 유위(有爲)에 얽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던지는 그물이 아무리 촘촘하다 한들, 바람은 그 속에서 흔들림 없이 자유롭게 흐릅니다.

오늘도 기도와 명상으로 마음의 그물을 내려놓고, 바람처럼 가볍고 물처럼 고요한 하루를 만들어 보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⑫ 김광섭의 '저녁에'



▶한줄 요약
이 시를 읽으면서 '윤회(輪廻)'란 단어가 떠올랐다. 지금 내 옆 사람이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는지, 다음 생에 어떤 관계로 이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같다. 자식이 성공해서 매스컴에 자주 나온다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과거에 저지른 부모의 잘못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명심보감〉에서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날지 모르니, 원수를 맺지 말라[人生何處不相逢 讐怨莫結]."고 했다. 비록 전래동화지만 흥부는 부러진 제비 다리를 고쳐 준 작은 친절로 큰 부자가 됐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다.

얼마 전 우연히 김광섭 시인의 '저녁에'를 읽게 됐다. 이 시는 대중에겐 가수 유심초가 부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노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불교의 '윤회(輪廻)'란 단어가 떠올랐다. 윤회란 나고 죽는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뜻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맺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우연만은 아닐 거라고 많은 불자들은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인연이 다음 생에 어떤 관계로 이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오늘의 시 '저녁에'를 주목하는 이유다.

김광섭(金珖燮, 1905~1977) 시인은 함경북도 경성군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와세다대학 영문과를 졸업할 정도로 촉망받던 인재였다. 귀국 후에는 모교인 중동고등보통학교에 영어 교사로 부임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당시 그는 일제의 민족 차별 정책과 조선어 말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총독부의 탄압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되는 것을 보고 일제의 언론탄압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그는 학생들에게 역설했다.

이를 그냥 바라만 볼 일제가 아니었다. 1941년 김광섭은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잔혹한 고문을 받은 시인은 특별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돼 옥고를 치러야 했다. 이는 친일이나 현실 도피를 택하지 않는 한,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의 운명이지 않을까 싶다. 온갖 고초를 겪은 그는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바라던 해방과 함께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김광섭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보 비서관을 지냈으며, 대전신문과 세계일보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했다. 김광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성북동 비둘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널리 인정받은 작품이다. 그는 독립 유공자로 국민훈장 모란장과 건국 포장을 받기도 했다. 〈동경〉을 비롯하여 〈마음〉, 〈성북동 비둘기〉, 〈해바라기〉 등 여러 시집이 있다.

오늘의 시 '저녁에'는 추상 미술의 선구자 김환기(金煥基, 1913~1974) 화백과의 인연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시인과 화가는 어린 시절 한동네에서 자란 이웃이었다. 김환기가 뉴욕에서 활동할 때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백은 김광섭 시인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오보를 접하게 된다. 깊은 상심에 빠진 그는 시인을 생각하면서 붓을 들었고, 그렇게 탄생한 그림이 바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제목의 점화(點畫)였다. 시의 마지막 구절을 제목으로 삼을 만큼 벗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것이다. 화백이 그린 수많은 점은 어쩌면 어린 시절 시인과 함께 바라본 밤하늘의 별이었을지 모를 일이다. 화백의 점화 시리즈는 이런 사연 속에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그림으로 화백은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우주'라는 제목의 점화는 2019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132억 원이라는 거액에 낙찰됐다. 한국 미술품 역사상 최고가를 갈아 치운 명화가 잘못된 오보로 탄생했으니,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저녁에'의 인연은 그림에서 그치지 않고 앞서 언급한 가수 '유심초'에 의해 명곡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이 노래로 '유심초'는 1981년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신인 가수상을 받았다. 고마운 인연의 연속이다.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김광석 부고 오보, 김환기 名作 이끌어
가수 '유심초' 노래로 널리 알려진 시
인연과 재회 기약 내용에 윤회 떠올라
윤회 사상, 인연 자애롭게 대하게 해

"저렇게 많은 중에서 /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 밤이 깊을수록 /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 이렇게 정다운 / 너 하나 나 하나는 / 어디서 무엇이 되어 / 다시 만나랴"

모든 인연을 자애심으로 대하라

언젠가 교회를 다니는 지인이 불교의 윤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전생의 자식이 지금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는 인간의 질서를 무시한,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았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윤리를 중시하는 유교(儒教)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윤회는 인간관계를 콩가루로 만드는 사상일까?

알려진 것처럼 윤회는 인간이나 동물, 아귀(餓鬼) 등으로 반복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전생에 살생과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음주를 금하는 오계(五戒)를 지키면서 비교적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음 생 역시 금생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나쁜 짓을 하면서 악하게 살면 지옥에서나 축생의 몸으로 태어나고, 착하게 살다 죽으면 하늘에서나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나게 된다.

이러한 윤회를 불교의 고유 사상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실은 그렇지 않다. 불교가 태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반복해서 태어난다고 믿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도의 전통 사상을 수용해 새롭게 정립했다. 특히 부파불교에 이르면 윤회설(輪廻說)이라는 하나의 학설로 자리잡게 된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살면서 몸과 말, 마음으로 행한 업(業)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믿었다. 죽은 다음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의 결과를 계산하기까지 보통 10일에서 49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절에서 49재(齋)를 지내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한때 출가해서 스님 생활을 했던 벗이 내 전생이 보인다고 전화한 적이 있다. 자신이 애정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참선에 들면 가끔 전생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벗에 의하면 내가 전생에 티베트의 학승이었다고 한다.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지만,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 전생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윤회는 검증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믿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라는 뜻이다. 다만 한 개인의 삶의 내용과 의미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지 않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윤회를 믿는다면 결코 가볍게 행동할 수 없다. 악한 행위를 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레 좀 더 선하고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 결국 윤회에 대한 믿음에 따라 삶의 양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시인은 어떤 인연이 있기에 수많은 별들 가운데 유독 하나가 자신과 눈을 마주치는 것인지 놀라워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수천억 분의 1의 확률이라고 말하면 조금 실감이 날지 모르겠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연을 '희유(稀有)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소중한 인연이라 해도 영원할 수는 없다. 아침이 밝아오면 그 별이 사라지듯 우리의 삶도 때가 되면 이별해야 한다. 이렇게 정다운 인연인데 여기서 끝이라면 너무 서운한 일이다. 그래서 시인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노래한다. 너 하나와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 모른다고. 가수 '유심초'는 시에는 없는 '나비와 꽃송이 되어'라는 가사를 넣어 다시 만나자고 노래했다. 통속적이지만 좋은 관계로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오늘 좋은 인연을 맺는다면 다음도 좋을 것이고, 나쁜 관계가 지속된다면 악연은 피하기 어렵다. 선한 인연을 쌓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서두에서 기독교인이 말한 콩가루 집안은 좀 더 상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윤회에는 지금 만나는 인연이 전생에 어쩌면 나의 부모일 수도 있으니,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이 전생에 나의 가족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을 자애심으로 대하라는 것이 윤회 사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다. 참으로 좋은 인연이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2025년 7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37호 | 15 | 전면광고

연상의 여인은 어머니처럼 여기고
중년의 여인은 누이처럼
여기며 젊은 여인은 딸처럼 여겨라.



부처님 말씀 읽기 -《본생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3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15억

- 위치 : 경남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법당 : 30평 외
- 매가 : 30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요양원(급)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 요양원 2층 180평(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앞 저수지 뒤 황학산 배산임수
- 가 액 :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광대사
- 대지 1000평, 법당 15평 요사채 25평
- 명산 도량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7395-15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 땅 대지 86평 대웅전 목재 20평 삼존불
  산신각 2평 요사채 20평 마당
  약사여래불 방3 화장실 3
- 가액 : 1억 6천만원

010-9137-3838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포교원 하실분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매매가격 : 5억5천
- 대지 : 107평(354㎡) / 건평 : 150.2평
- 지하 : 24.4평 / 1층 : 67.4평 / 2층 : 58.3평 / 옥상
- 1층과 지하 전세줌 / 1층 화장실1
  2층 법당1 방2 주방 거실 화장실2

010-3042-08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 찰 안 내

기도하며 한가하게 살기좋은 수행처

- 대지 85평 중 인법당 16평
- 조립식 요사채 12평
- 가격 : 3800만원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온천길 114-3

010-8987-457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 대지 : 570평, 임야 및 밭 1500평, 건평 140평
- 건물 : 대웅전 30평,산신각 7평, 용궁 3평, 미륵불, 요사채 50평, 별채 3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 산에 둘러 싸인 볕 좋은 도량, 편의시설 및 냉난방 완비, 목재 콘크리트 사찰

043-832-478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부지 2013㎡
- 법당 약40평, 요사채 약60평, 창고 약20평
- 산세 및 풍광 좋음
- 주차장 넓음
- 매매 : 6억 5천만원

010-3466-9991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전국 산중 사찰 중 개곡 있고, 숲이 많고, 터가 넓고, 도로좋은 곳
- 산중사찰 중 토지 넓은 사찰
- 수목장, 납골당 가능한 곳(경북)
- 도심 포교당 1억에서 3억
- 도심 사찰 중 15억 이내
- 사찰함께 운영할분(템플스테이 등)
- 전통사찰 중 문화재보유 사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충남 · 북
- 1억~2억 금액 암자(토굴)
- 2~3년 사찰임대 놓으실분 구함 2~3년 후 임대한 스님 구입확실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인연보시' 같이 동행할 인연 찾습니다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 267-28
- 사찰 규모 3600평, 목조/극락전 30평, 목조/산신각 요사채 80평, 7m 미륵입불, 미분양 부도탑 20기, 연못용왕당 찜질방 등
- 가액 : 10억원(상담후 50% 인수가능)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사찰
- 평수 : 18513㎡(5600평)
- 매매 : 17억

010-4646-2580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소재 대구 1시간 거리
- 법당, 주방, 방 2, 화장실 2
- 시설비 : 1000만원, 보증금 500/40

010-7942-901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30평
- 법당, 소불당 삼성각 용왕당
- 사시사철 자연수, 상수도 전망 아주좋음
- 매매 또는 전월세 가능

010-5033-1422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곳,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1000, 월세 15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50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동고령ic부근
- 230평 법당18평
-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과 용왕불 3필지
- 가액 : 4억7천
- 절충가능

010-3540-8431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신도시 교산지구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요사채,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매매가 40억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도청 부근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 장호원 감곡kt역 10분거리
- 대지 1100평 대웅전
- 60평 종각, 요사채3동, 휴게실 다도, 산신각
- 신비스런고 유명한 거북바위소원돌, 찜질방, 연못 12m해수관음보살, 대형용, 요양원 토목공사 완공

*상담 가능(월수금은 기도중 입니다)

010-5883-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가야산 아래 백운동 60평
- 1가구 2주택 해당 안되는 공기가 매우청정한 토굴
- 거실, 방2, 화1 군불넣는 잘지어진 황토방1
- 가액 : 6900만원

010-9468-012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광고시
'무료' 영상광고 제공

QR코드 찍으시면
영상으로 사찰을 볼 수 있어요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을 검색하세요

2025년 7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안내

1537호 | 16 | 전면광고

여러 하늘의 음식과 복이 언제나 변동함이 없게 하고
세상 사람의 수명이 언제나 존재될 수 있게 하며
출입이 자재할 수 있게 하여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구례 부요사 '20년 된장 간장' 판매

신안소금과 국산콩으로 스님이 직접 담근 '20년 된장과 간장'을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010-8830-109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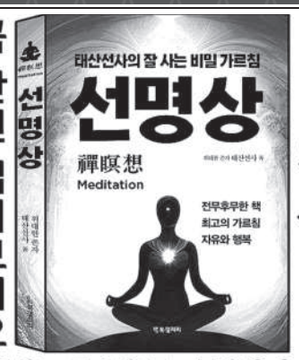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010-2168-2800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스님구함
행자, 처사님,
공양주 보살구함
(태고종)부산 만덕동
만덕사

010-3840-4355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강주 스님 도강 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천하제일 적중률!

손으로 짚어 안되는 것이 없는
구단구궁법 교실
상 표 등 록 : 40-0863341
서비스표등록 : 41-0213393
저 작 권 등 록 : C-2011-003967
특허 2일 완성 학생모집

법화 종헌 정흥교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 불교연합회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⑬ '무빙'(2023)

가족 위한 움직임, 그 자체가 감동

어린 시절 한 번쯤 초능력을 꿈꿔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하늘을 날고 투시를 하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초능력을 말이다. '~맨' 이라는 이름이 붙은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며 초능력의 세계에 푹 빠져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드라마 '무빙'은 초능력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체를 숨기고 살고 있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정체를 숨기고 살기 때문에 흔히 보는 미국 히어로들처럼 '~맨' 하는 이름도 없고 그에 걸맞은 요란한 복장을 하지도 않는다. 그저 안기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대북관계에 관한 은밀한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

안기부 비밀 요원인 비행 초능력자 김두식(배우 조인성)은 같은 안기부 직원인 오감 초능력자 이미현(배우 한효주)을 만나 우여곡절 끝에 안기부를 탈출해 아들을 낳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달콤함은 잠시, 집요하게 추적해 온 안기부에 스스로 잡히면서 미현이 피할 시간을 벌어 준다. 가까스로 안기부의 추적을 따돌린 미현은 두식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로 돈가스 식당을 하며 아들 봉석(배우 이정하)을 혼자 키운다.

포항의 조직폭력배였던 재생 초능력자 장주원(배우 류승룡)은 부하의 배신으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주원의 초능력을 알아본 안기부 직원에 의해 비밀 요원으로 스카우트된다. 떠돌이 시절에 만난 다방 레지 황지희(배우 곽선영)와 결혼해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교통사고로 지희를 잃고 안기부를 벗어나 딸 희주(배우 고윤정)를 키우며 산다.

이외에도 괴력의 초능력자 이재만(배우 김성균), 전기 초능력자 전영석(배우 최덕문), 투시 초능력자 홍성화(배우 김국희) 등의 초능력자들이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들의 삶을 흔든 것은 재생 초능력자인 CIA요원 프랭크(배우 류승범)의 등장이다. 프랭크는 초능력자를 한 명씩 찾아가 자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살해한다.

프랭크가 초능력자들의 자식을 찾아다닌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이었다. 봉석은 두식의 비행 초능력과 미현의 오감 초능력을 모두 물려받았고, 희주는 주원의 재생 능력을, 강훈(배우 김도훈)은 재만의 괴력을, 계도(배우 차태현) 역시 영석의 전기 초능력을 물려받았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비밀 요원들의 힘이 대물림된다는 데에 위협을 느낀 CIA가 자신들의 인간 병기인 프랭크를 시켜 비밀 작전을 수행한 것이다.

한편 안기부는 어린 봉석을 통해 초능력자들의 능력이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알고 진작부터



사진 출처=디즈니+

초능력자들의 삶 다룬 SF 장르
부모 삶 대물림 거부 의지 보여
신통은 수행의 부차적 결과일 뿐

이들을 모아 교육하면서 잠재적 초능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안기부에서 이름을 바꾼 국정원을 본딴 정원고등학교. 봉석과 희주와 강훈이 다니는 학교이자 계도가 졸업한 학교다.

그리고 국정원과 대척점에 있는 북한의 보위부 역시 '기력자'라고 부르는 초능력자들을 양성해 비밀 조직을 구성하고 국정원의 '초능력자 2세 육성 파일'을 탈취하려고 정원고등학교를 찾아온다.

드라마 '무빙'은 기본적으로 초능력자를 다루는 SF 장르이면서도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복합적 장르 기법으로 구현하고 있다. 봉석과 희주 중심의 고등학생 주인공들이 주로 등장하는 초반부는 가족 드라마이면서 학원물 장르의 성격을 띠고, 두식과 미현의 과거 이야기는 멜로드라마와 시대극의 성격을 띠면서 첩보 스릴러물 같으며, 주원의 과거 이야기는 갱스터 느와르물이다. 여기에 초능력자들의 액션 장면은 수퍼히어로물, 첩보 액션, 고어물의 요소가 강하다.

초능력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액션이 넘쳐나는 미국식 히어로물을 떠올리기 쉽지만 '무빙'이 하려는 이야기는 꽤 묵직하다. 항공기 테러, 남북 정상회담, 김일성 사망 등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사건을 담고 있으면서도,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는 집단의 공격에 대항해 가족을 지키려는 부모의 처절함이 담겨 있다.

'무빙'의 부모들은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살아왔지만 자식이 위험에 빠지는 순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껏 초능력을 발휘한다. 심상치 않은 일들이 있음을 눈치채고 학교를 찾은 미현이 미화원으로 위장한 보위부원을 처리하고는 권총에 탄환을 장전하고 안경을 벗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어디 그뿐인가. 불량배에게서 지희를 구하려는 주원과 강훈을 구하려고 학교로 뛰어가는 재만이, 넓은 의미에서는 가족 같은 봉석을 구하는 계도가 그렇다.

'무빙'은 남북의 아버지 김두식과 정준화(배우 양동근)가 각각 '초능력자 2세 계획'을 추진하려는 정보기관 수장을 제거함으로써 부모 세대가 겪은 잔혹한 시대의 삶을 자식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주제의식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초능력을 불교에서는 신통력이라고 한다. '무빙'의 부모가 자식의 위험 앞에서 무한한 초능력을 발휘하듯 세간의 모든 것을 다 알아 중생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부처님 역시 많은 신통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런 부처님의 신통력은 간단히 여섯 가지(六神通)라고도 하고 자세하게는 열여덟 가지(十八不共法)라고도 한다.

부처님 역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신화와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신통은 특이한 일이 아니라 수행의 결과로 저절로 나타나는 부차적인 효과일 뿐이다. 부처님의 경지를 중생의 수준으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 실제로 기도를 통해 영험을 체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다.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몸을 던져 기적을 만드는 부모들의 예도 적지 않다.

신통과 기적은 불보살에게 의지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다. 화엄이나 선에서는 성불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 나는 본래부터 부처이니 스스로 부처임을 믿고 부처로 살면 그것이 성불이라는 것이다. 이는 내가 부처로 살면 나에게 6신통과 18불공법이 갖추어진다는 말이다. 신통과 기적은 내가 부처로서 발휘하는 부차적인 일일 뿐이다.

'무빙'의 등장인물들은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등의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저 나와 얼굴 마주보고 사는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초능력을 발휘할 뿐이다. 그러므로 '무빙'이라는 제목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움직이는 일'이 바로 '감동' 그 자체인 것이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선정 닦고 익히고 외우며 복 짓는 수정·습송·영복 업륜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㉕ 국왕의 3종 업륜

〈지장십륜경〉 제2불륜(佛輪)품은 국왕의 3종 업륜을 비유해 말씀하십니다.

국왕의 3종 업륜이란 ①건립 제왕 업륜(군인들을 잘 가르쳐 적군을 항복 받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 ②건립 전택 업륜(집을 짓고 농사를 경영해 안온하고 음식이 풍부해지는 것), ③건립 재보 업륜(공업과 상업 기술을 가르쳐 재산을 얻어 충분하게 사용해 즐거움을 더함)입니다.

이러한 왕의 3종 업륜에 대해 부처님의 3종 업륜은 첫째 선정을 닦는 업륜인 건립 수정(修定) 업륜, 둘째 익히고 외우는 업륜인 건립 습송(習頌) 업륜, 셋째 복을 짓는 업륜인 건립 영복(營福) 업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장보살이여, 여래가 선정을 닦는 수정(修定) 업륜에 열 가지가 있다.

1. 유정의 몸에 있는 육종(六種; 안, 이, 비, 설, 신, 의) 경계를 관찰한다.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이 인(因)이 되고 업이 좋은 밭이 되며 무명이 덮개가 되고 애욕이 자양분이 되며, 아무런 자유가 없고 남을 의지해서만이 설 수 있고, 온갖 연(緣)에 얽매여 있다. 업과 번뇌와 고통의 세 가지 흐름을 없애기 위해 관찰하는 것이다.

2. 업류란 어떠한 것인가? 일체 유정이 행하는 모든 행(行)이다.

3. 만일 이 모든 행의 근원(12인연을 차례로 관함)인 무명과 애욕과 인이 되어 모든 존재를 생(生)하면 그것을 번뇌류라고 한다.

4. 번뇌로 말미암아 식을 그 인으로 삼아 온갖 연이 화합하면, 명색이 생긴다. 그리고 명색을 인으로 하여 육처(六處)가 생기며, 육처가 인이 되어 온갖 연이 화합하면, 촉(觸), 수(受)와 함께 노사(老死)가 생기는데, 그것을 고류(苦流)라고 하느니라. 이같이 삼류(三流)는 업이 좋은 밭이 되고, 무명이 인이 되며 애욕이 자양분이 돼 생장하는 것이라고 관찰한다.

5. 삼류를 없애기 위해 오취온(색, 수, 상, 행, 식)을 관찰하되, '덧없고 괴롭고 '나'가 없는 것으로 … 꿈에서 본 것 같고, 공(空)하여 아무것도 없으며 … 출생(出生)이 없는 것'이라고 관찰하면, 공함을 깨닫고 진실한 모습이 없음과 욕망이 없는 평안함에 순응할 수 있느니라.

6. 입출식관(入出息觀)을 닦는다. 종래(산란한) 생각을 떠나는 것으로, 염(念)에 의해 들숨과 날숨을 관찰한다. 수(數), 수(隨), 그침[止], 봄[觀], 전개(轉開), 정(淨) 등에 각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렇게 오취온을 관찰하면 세 가지(몸, 말, 뜻)를 제거할 수 있고 끝까지 관찰하면 세 가지 행이 다한다. 즉 유정의 몸과 6가지 경계에 있어 끝까지 관찰하면,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과 업과 무명과 애욕의 인, 밭, 덮개, 양분 등 일체가 모두 없어지느니라.

7.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한 네 가지 수행을 익히면, 모두 원만함을 얻는다.

8. 팔정도(八正道)를 닦아 익히면 모두 원만함을 얻는다.

9. 부처님만이 지닌 열여덟 가지(十八不共法) 특질을 닦아 익히면 모두 원만함을 얻는다.

10. 이 같이 일체의 무생법인과 수능가마삼마지 등을 닦아 익히면 모두 원만함을 얻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나는 이 같은 업법(業法)이 받는 인과의 지혜로써 삼세 부처님의 법안을 관찰해 유정을 안립시키며, 십종의 선정을 닦는 업륜을 수행하게 하나니, 이것을 여래가 선정을 닦는 수정업륜이라 하느니라."

두 번째 습송(習頌) 업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장보살이여, 여래가 익히고 외우는 업륜(업의 바퀴: 선악의 행위에 따라 사람을 육도에 실려 보냄)이란 어떤 것인가? 이른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선근이 박약해 세속 진리에 의지하고 근기가 성숙하지 못했더라도, 나는 그런 유정을 평안하게 익히고 외우게 하되, 초저녁에서 새벽까지 정근하여 게으르지 않게 한다. … 그것은 자타의 번뇌를 다 제거하기 위함이요, 위없는 지혜를 증득하게 하기 위함이며, 두려움이 없는 성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니라.

만약 연각승을 구하는 유전이 있으면 나는 모든 연기법으로 익혀 외우게 하고, 성문승을 구하는 유정이 있으면, 백 천 문송(文頌)의 네 가지 경(經)장과 율(律)장 및 논(論)장과 주석을 안치해 그것을 외우게 하나니, 선남자여, 이것을 여래의 익히고 외우는 업륜이라 하느니라."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술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독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⑬ 궁궐 깊숙한 곳의 불교 신앙처, 내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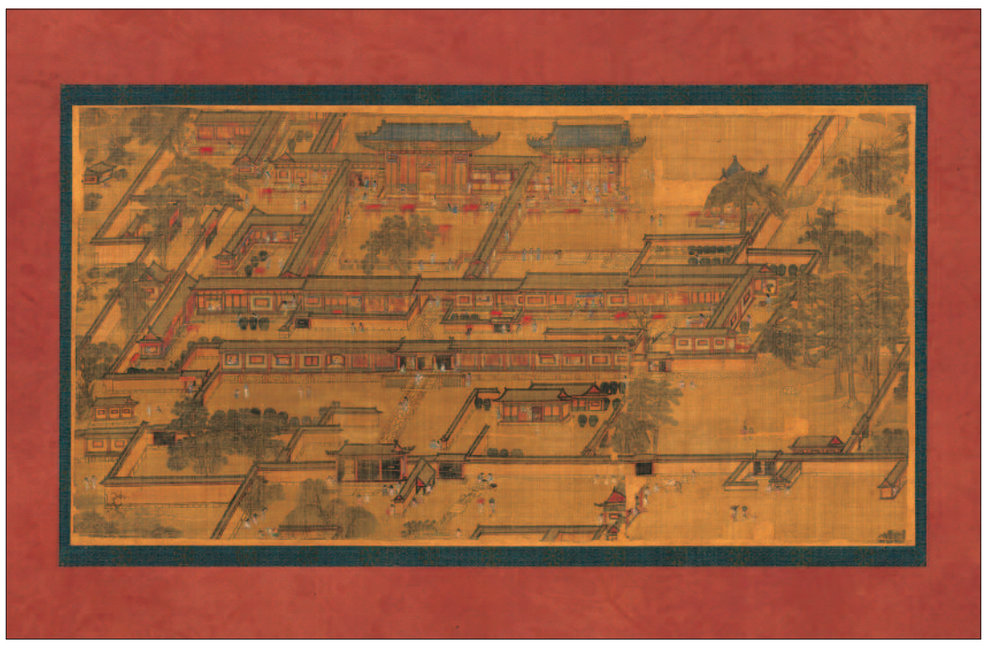
▶한줄 요약
성리학을 기치로 건국된 조선의 궁궐 안에는 '내원당(內願堂)' 혹은 '내불당(內佛堂)'으로 불린 불당(佛堂)이 건립됐다. 사찰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궐내에서 국왕과 왕실을 위해 불사를 거행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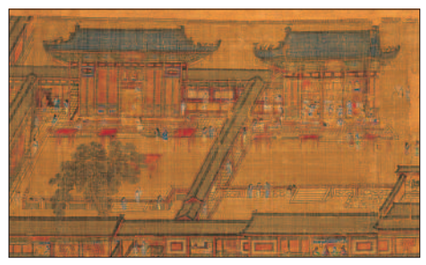
억불시대, 조선왕궁 지킨 '불심'의 공간

〈佛心〉

성리학을 기치로 건국된 조선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부처에게 기원하고 부처의 나라에 다시 태어나기를 꿈꿨다. 조선을 세운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재위 1392~1398)야말로 이를 제일 잘 보여주는 인물일 것이다. 태조는 1394년 한양부로 천도(遷都)를 단행했다. 새 수도에는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종묘와 궁궐, 성곽 등을 건설하는 한편, 부처에게 왕실의 복을 비는 크고 작은 원찰(願刹)을 건립하도록 했다. 왕실 원찰은 수도의 건설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성리학자 신료들의 구상에는 없었던 불교 공간이었지만, 궁궐 안에는 불당(佛堂)이 건립되었다. '내원당(內願堂)' 혹은 '내불당(內佛堂)'이라 지칭되었던 이 불교 시설은 사찰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궐내에서 국왕과 왕실을 위해 불사를 거행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궁중숭불도, 조선 전기, 16세기, 액자, 비단에 채색, 화면 46.5 × 91.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건희 회장 기증. 사진 제공=e뮤지엄



궁중숭불도 중 불전과 사당 세부. 사진 제공=e뮤지엄



조문(祖文), '감로도' 세부, 조선, 1580년, 족자, 삼베에 채색, 화면 142.5 × 111.3 cm, 개인 소장.

조선 궁궐 안의 절, 내원당(內願堂)

국초에 건립된 내원당의 위치나 연혁에 대해 사료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태조실록〉 권9, 태조 5년(1396) 1월 24일(계미) 기사에 "(임금이) 화공에게 분부하여 부처를 그려서 새 궁에 안치하고 불사를 일으키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비록 '내원당'이나 '내불당'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새 궁 안에 부처를 안치했다는 것 자체가 곧 불당을 설치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조의 양위로 조선의 제2대 국왕으로 등극한 정종(定宗, 재위 1398~1400)은 1399년에 개경으로 천도를 단행했다. 정종이 즉위한 지 겨우 2년 만에 양위하면서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은 개경의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태종은 1404년 한양으로의 환도(還都)를 전격적으로 결정했고, 한양에 이궁(離宮, 정궁 외의 별궁)을 세울 것을 명했다.

1405년 가을 한양으로 환도한 태종은 정궁인 경복궁이 아니라 이궁인 창덕궁(昌德宮)으로 들어갔다. 사료에 내원당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무렵의 일이다. 태종은 1406년 8월 창덕궁 북쪽에 인소전(仁昭殿, 1408년 문소전(文昭殿)으로 개칭)을 설치해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 韓氏, 1337~1391)의 영정을 안치하고, 그 부속으로 불당을 창건했다.

창덕궁의 문소전 불당은 명실공히 조선 초기 국왕을 위시한 왕실 사람들을 위한 신앙 공간이었다. 예컨대, 세종(世宗, 재위 1418~1450)은 1419년 태조가 흥천사 석탑 안에 두었던 불사리 등을 내불당에 옮겨 두었고, 각 도 사찰의 승인(僧人)들이 헌상하는 불사리와 불골을 여기에 모셔 두었다. 세종은 1423년, 신녕궁주 신씨(愼寧宮主 辛氏, 1377~1435)가 부왕인 태종의 명복을 빌려 하자 내불당에서 황금으로 경전을 베껴 쓰도록 했다.

그런데 세종의 호불(好佛)은 점차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세종은 1432년 11월 경복궁에 진영 대신 신주를 봉안하는 원묘(原廟)로 문소전을 새로이 건립했고, 1433년에는 창덕궁 문소전의 불당을 폐지하고 불상 등은 도성 안 흥천사(興天寺)로 옮기게 했다.

그러나 세종은 재위 후반인 1448년 7월에 이르러 기존 태도를 번복하고 경복궁 문소전 서북쪽에 내불당을 다시금 건립하고자 했다. 이때 신하들이 궁궐 안에 절을 짓는 것을 극심히 반대하자 결국 궁성 백 보 밖에 내불당을 지어 낙성했다고 한다. 1448년 12월 5일의 일이다. 경복궁 문소전의 내불당은 연산군(燕山君, 재위 1495~1506)이 도성 내 사찰들을 철거한 1504년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 경복궁 문소전 내불당의 낙성을 축하하며 무려 닷새에 걸쳐 베푼 경찬회(慶讚會)에 관한 기록에서 그 화려함을 엿볼 수 있다. 〈세종실록〉 제122권, 세종 30년(1448) 12월 5일(정사)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불당의 제도가 사치와 화려함이 지극하여 금과 구슬이 눈을 부시게 하고, 단청이 햇볕에 빛나며, 붉은 비단으로 재봉(裁縫)하여 기둥에 입혀서 주의(柱衣)라고 이름하여 더럽혀짐을 방지하고, 향나무를 새겨 산(山)을 만들고 금부처 세 구(軀)를 그 가운데 안치하였으니, 그 금부처는 안평대군이 일찍이 성녕대군 집에서 감독해 만든 것이다. 근장(近仗, 근위병)으로 하여금 관대(冠帶)를 갖추고 대가(大駕, 임금이 타던 수레)를 호위하는 의식과 같이 대내(大內, 대전의 안)에 메고 들어가게 하여, 친히 관람하신 뒤에 불당에 안치하였다."

경복궁 문소전 내불당 경찬회 기록돼
궁중숭불도, 내불당 추정 불전 그려져
두건 쓰고 장삼 · 가사 수한 인물 담아
비구니 등 여성 왕실 사찰 운영 암시

이에 덧붙여, 세종은 새롭게 악곡을 지어서 관악기와 현악기로 연주하게 하고 악기를 모두 새로 만든 연후에 공인(工人) 50명과 무동(舞童) 10명에게 미리 연습시키며 부처에게 공양하게 했다고 하니, 그 정성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세종은 이듬해 1월 18일에도 내불당에서 나흘에 걸쳐 거듭 경찬회를 베풀었다. 세종이 재건한 내불당은 군주가 불교적 효를 실천하는 공간이자, 살아 있는 왕실 가족의 안녕을 비는 장소이기도 했다. 세종은 1449년 11월에 세자의 구병(救病)을 위해 수양대군 등에게 명하여 내불당에서 약사재(藥師齋)를 행했고, 세자가 쾌차하자 같은 해 12월 내불당과 흥천사에서 보공재(報功齋)를 베풀었다고 한다.

궁중숭불도 속 불당과 여성의 신앙 공간

앞서 언급한 경복궁 문소전 내불당의 경찬회 기사 외에 내불당의 모습에 대해 알려 주는 기록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공백을 메워 주는 귀중한 시각 자료로 흔히 '궁중숭불도(宮中崇佛圖)'라고 알려진 한 점의 그림이 있다. 이 작품의 내력에 대해서는 상세하지 않으나, 여러 폭을 연결한 병풍 중 세 폭에 걸쳐 묘사된 장면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잘라 액자로 표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궁궐의 모습을 부감법으로 그린 궁궐도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상단 중심부에는 청기와를 얹고 추녀마루를 잡상(雜像)으로 장식한 정면 5칸의 불전(佛殿)이 자리 잡고 있다. 조선 전기에 청기와의 주원료인 염초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군수물자였다. 이 때문에 청기와의 원료 수급과 제조는 원활하지 못했다. 그 결과 청기와는 궁궐의 중요한 전각이나 왕실의 원찰, 중국과 관련이 깊은 건축물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이로 보아 청기와로 이은 그림 속의 불전은 왕실의 후원을 받은 사찰, 나아가 궁궐 내에 건립된 내불당일 가능성이 있다.

불전 어칸의 열린 문 사이로는 금빛을 내뿜는 삼존불상이 보인다. 수미단 위에는 결가부좌한 좌상이 안치돼 있고, 그 좌우로 보살입상이 모셔져 있다. 불전의 양옆으로 연결된 회랑에는 두건을 쓰고 장삼을 입은 위에 붉은 가사를 수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내불당의 주불전으로 짐작되는 이 건물 앞으로는 붉은색의 높은 탁자 4기가 놓여 있고, 그 옆으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불전 앞에는 머리를 틀어 올리고 긴 저고리를 입은 여성들이 두셋씩 짝을 지어 분주하게 오고 가는 모습이다.

오른쪽 회랑에 연결된 건물 안에는 높은 수미단 위로 감실(龕室) 4기와 삼존불상이 모셔져 있어 사당으로 짐작된다. 감실 안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왕실 가족의 신위가 모셔졌을 것이다. 불단 앞에는 회색 옷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쓴 여러 승인이 법고 소리에 맞춰 작법무(作法舞)를 올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건물의 앞에는 높은 탁자 4기가 묘사돼 있다.

이처럼 두건을 쓰고 가사를 수한 비슷한 차림새의 인물들이 그림 전체에 걸쳐 보인다. 흥미롭게도 두건은 조선 왕실의 발원으로 도갑사(道岬寺)에 봉안됐던 '관음삼십이응신도(觀音三十二應身圖)(1550년, 일본 지온인[知恩院] 소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구니를 상징하는 차림새였다. '관음삼십이응신도'에는 비구니 도상 옆에 '비구니가 되어 득도한 이(比丘尼身得度者)'란 뜻의 글귀가 한자로 적혀 있어 이를 분명히 했다. 조선시대의 여러 감로도(甘露圖)에 등장하는 비구니 역시 두건을 쓴 모습으로 묘사된 경우가 많다. 이는 두건이 조선시대 불교 회화에서 여성 출가 수행자를 상징하는 주된 도상이었다는 점을 알려 준다.

다시 '궁중숭불도'로 돌아와 본다. 이 그림 속에 묘사된 전각들이 어느 시기의 내불당을 재현한 것인지는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

다만 처마 밑에 묘사된 붉은 격자문 장식이나 여성들이 입은 긴 저고리가 1550년에 그려진 '호조낭관계회도(戶曹郎官契會圖)'에 보이는 그것과 유사하다. 이에 근거할 때, '궁중숭불도'는 16세기 중엽에 그려진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림 속에서 의례를 주관하는 이들이 두건을 쓰고 있고, 또 마당을 오고 가는 많은 이들이 여성이라는 점은 매우 주목된다. 이 점은 조선 전기에 비구니가 내불당과 같은 왕실 사찰의 법회를 주도했고, 이러한 사찰의 살림이 여성들에 의해 운영됐다는 점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림 속에 묘사된 수많은 여성의 모습은 조선 전기 내불당이 비록 국왕에 의해 설치되고 존폐됐으나, 결국에는 왕실 여성들의 신앙 공간이자 불사의 현장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건강식품 대특가! 단 100세트 한정 특별할인판매

기간 : 오늘부터 ~ 2025년 7월 30일까지

세계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모방불가능! 세계 최초 기술력!
관절·연골·칼슘을 한 번에 챙기세요!

① 에이펙셀 관절연골튼튼
✔ 세계최초 기술력! 관절+연골 집중 케어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증정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하루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관절 지키기!



② 한국칼슘왕 (나노칼슘)
✔ 세계최초 나노입자 칼슘으로 흡수력 UP!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2개월분)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칼슘! 뼈부터 챙기세요!



③ 본추관절정 2+2 행사
✔ 관절과 연골에 딱 맞는 4개월 구성!
1세트(2통)+사은품 2통 → 총 4통 (4개월분)
정가 396,000원 → 특판가 15만원
→ 무릎, 어깨, 허리까지! 50% 할인 찬스!



■ 지금 전화주세요! 선착순 100분 한정판매!
■ 수량소진 시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 택배무료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는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에서 주문시 가능)
■ 상담 : 1688-9099 ■ 신한은행100-036-429749(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자기 내면세계에 주인공 안테나를 탁 세워 놓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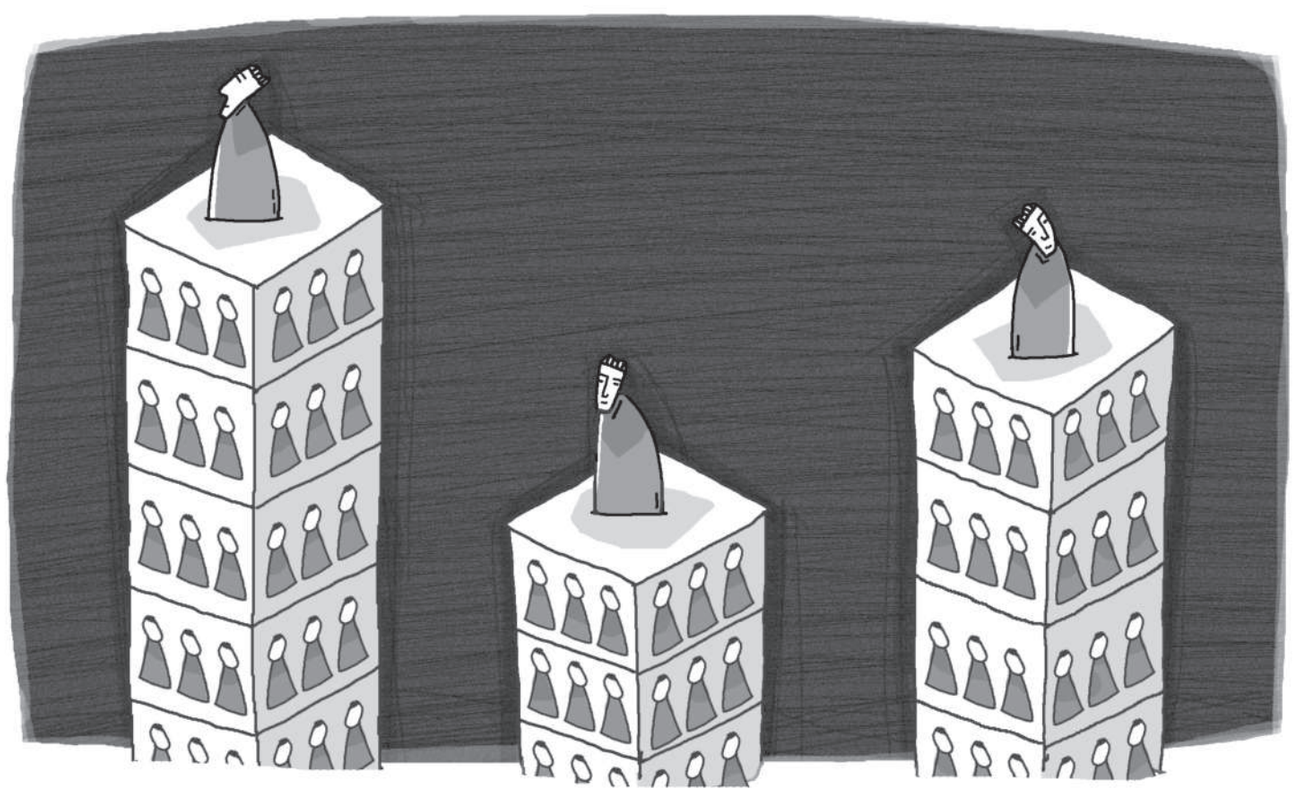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불법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가 쇠퇴하던 시절에 기복으로 편집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복으로 따르고 그렇게 믿고 가게 되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적 특징을 살려서 지금 현시점에 맞고 우리가 가는 길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그러하니 우리가 마음을 계발해서 내 몸이나 내 가정, 사회나 국가, 세계적으로 모든 걸 조화롭고 화목하게 돌릴 수 있는 원심력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르다면 나중에 질문도 하시고 또 나를 탓해도 좋습니다.

그럼 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것이 그렇지마는, 지금 살림하는 현시점에서 보면 우리 몸이 혹성이 될 수도 있고 그 혹성 속에 별성이 수십억 마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수화풍이 바탕이 돼서, 그것이 근원이 됨으로써 거기에서 수없는 생명이 창조가 되고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도 참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됐어도 정법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인간으로 어렵게 나왔는데 부처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간대서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있어서 우주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주도 있다는 걸 아는 그 시점으로부터 벌어진 겁니다. 즉, 바로 자기 마음에 우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한 생각에 수억 마리의 분신을 만들 수도 있고 분신을 없앨 수도 있고, 악을 만들 수도 있고 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스러운 무한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그걸 알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 주인공의 안테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본래자성불 자체의 안테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생각 낼 수 있는 법신, 그리고 움죽거리는 화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위일체로서 회전하면서 자기가 바로 안내인처럼 또 선장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자기 몸뚱이가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몸뚱이 속의 간세포만 하더라도 수십억 마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뚱이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집입니까? 그것이 내 몸이라고요? 이게 나라고요? 어떻게 나만 됩니까? 수십억 마리가 같이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간절하게 '우리가 당신을 선장으로 뽑아 놓았으니 당신 마음 한번 잘 먹어서 우리들을 잘 이끌고 가신다면 우리도 성불하고 우리도 각(覺)을 이룰 수 있고 우리도 이 미생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각자 자기의 선장한테 기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장이 코치를 잘못하는 길잡이가 된다면 그 배에 탄 중생들은 다 소멸되고 악으로 떨어지고 죽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님한테만, 어떠한 장소에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고 있는 데는 다 있는 것입니다. 일체 만물만생, 즉 말하자면 태로 나는 거, 알로 나는 거, 질척한 데서 나는 거, 화해서 나는 사생이 사는 데는 다 불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을 하고 밥을 해다 놓고 빌고 타의에서 구하고, 이러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사생이 다 생명이 있으니 바로 '불(佛)'인 것이고, 그것이 생각을 하고 움죽거리니 '법(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대로 살아나가는 그 생활이 불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불법을 잘못 알고 계신다면 바로 귀신, 미신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스님이 된 것도 아니요, 호화롭게 남이 가져오는 거 먹고 살 양으로 스님이 된 것도 아닙니다. 스님 노릇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아마 그 실천을 해 보지 못해서 모르실 겁니다. 무의 법, 유의 법을 한데 합쳐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그 자체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가자." 이러겠지마는 평소에 스님들은 배가 부르면 마음이 해태해지고, 또 기름진 쌀밥을 먹고 배가 불러도 남이 배고픈 줄 모른다고 해서 일종식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본래 내 몸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지금도 하루에 먹는 것이 보리밥 한 공기도 안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 우주간 법계에서 나를 용서치 않을 거예요. 누구도 내 행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내 행동과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양심이 부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남 보지 않는 데서 무슨 일을 하고서는 아무리 안 한 척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이상 우주간 법계에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천체통신기 있잖아요? 무전기. 무전통신기가 벌써 모든 법계를 싹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니 어찌 한 치라도 우연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진실하고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한마음의 안테나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신통이 한마음의 안테나에 붙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축이 있음으로써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프로펠러가 있기 때문에 축이 있다는 것을요. 축은 본래 자기 자성불이요, 움죽거리지 않고 들이고 낸다 이겁니다. 움죽거리지 않는 자성불을 중심으로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입니다.

그러니 그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하늘을 받치는 안테나 기둥이 서야 모든 일체, 삼천대천세계에서 일체 만물만생이 서로 살아나가면서 전달하는 그 이치가 거기 안테나에 잡히거든요. 이것을 세우지 않는다면 모두가 막혀요. 나한테서 지혜가 나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연결이 되지도 않고요. 본래 연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끊어서 태질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볼 점이 있지 않으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으로다가 아무리 뜨고 날고, 만약에 한 사람이 백 명을 밀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말이에요, 밀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현대를

☞ 20면으로 계속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한번 내디딜 수 있는 패기와 믿음이 있어야

☞ 19면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 아시고 계십니까. 배움도 있고 상식, 교양, 학식이 있어서 모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전에 산에 있을 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축지법을 하고 수없이 육신 무예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막대기 하나를 짚고서 시도를 해 봤죠. 그랬는데 그 후에 잠깐 사이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얘깁니다만, 여자가 하는 일 있죠? 그냥 그 추운 데 앉아 있었더니 말이에요, 돌하고 나하고 옷하고 그냥 붙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춥기는 하고 그래서, 아주 까마득하게 보이는 저 너머 집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축지법을 한다면 저 건너 집을 갈 수 있을 텐데….' 하구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나자마자 뒤따르는 마음이 '어허, 이것은 내 육신 하나에 관한 건이지 육신이 아무리 축지법을 해서 저 집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는 몸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시점을 한번 넓혀 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 한생각에 의해서 컴퓨터를 쓰고 있고 한생각에 의해서 지금 공중으로 날아다니는데 한 개인의 축지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와 같죠. 그래서 '아차! 나의 이 생각이 이 시점에서는 참 잘못된 생각이로구나. 앞으로는 못 갈망정 뒤로 물러선다면 말이 되나?' 하고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물을 찾으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 골짜기 골짜기를 다니며 겨우 물을 찾았는데 물이 거죽에는 얼어붙고 그래서 흙을 파내고 파내서 요만한 돌 하나를 캐서 얼음을 깨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옷을 싹 벗고선 빨아서 꼭 짜서 입으니 그게 그냥 얼어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버린 몸, 하하하….

여러분도 좋은 옷을 입고 조심조심 가다가도 뭐, 흙이 튀거나 비를 맞거나 그런다면 '에이그, 어차피 버린 옷, 버린 몸!' 하고 그냥 맞고 가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버린 몸!' 하고서 있었더니 부처님께서 불쌍하게 보셨던지 양지에 있는 산소로 끌고 가서 그 밑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그렇게 잘 말렸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그런 것도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싸움을 하고 나는 못 산다, 산다 하고 애쓸 때에 그러한 뜻이 참고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일 조건은 뭐냐? 내 주인공의 안테나. '주인'이라는 건 축을 말하고 '공'이라는 것은 프로펠러와 같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살아나가시는 데에 고정관념과 고정된 행과 고정된 말과, 고정되게 듣는 거와 고정되게 만나는 거와 고정되게 가고 오는 거와 고정되게 먹는 거와 그렇게, 고정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정된 것이 있다고 본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모든 게 고정됨이 없습니다.

> 지금 이 세상에 몸뚱이가 나왔으면 칼을 뺀 거와 같습니다.
> 그냥 갈 수는 없죠?
>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모르고
>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온종일 그렇게 놓고 가면서도, 고정됨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공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은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주인공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자 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혜능 선사가 이런 말을 했죠? 오조 홍인 선사가 밤중에, 삼경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라는 말이나 했나요? 주장자를 탕 탕 탕, 세 번 쳤었죠. 그러니까 벌써 알고서 삼경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금강경』을 강설하시는데 육조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가지 조건 말입니다. '본래자성불이 청정함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런 말이요. 이 중에 청정이라는 자체가, 바다가 깊어서 모든 물이 바닷물로 다 모이는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구정물 깨끗한 물 뭐, 고름물 핏물 다 한데 합쳐서 거기에 모이는 거. 모이는 그것도 아니라고 해서 젖는 거. 허허, 똥물에도 젖고 핏물에도 젖지 않습니까? 그걸 청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본래자성불이 청정함을 알았으리까. 본래자성불이 생멸이 없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본래자성불이 일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본래자성불이 움죽거림이 없이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 네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정관념도 없고 어떤 것도 없이 여러분은 그대로 본래 자성, 바로 신이며 본래자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본래자성불인데 그 본래자성불 가운데에 바로 중생들이 수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동서가 둘이 아니요, 세상이 전부 둘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 뜻을 아신다면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돌리면서, 깔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아상 부리지 말고, 살생을 일부러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실천해 가십시오. 그러면 이런 계율들을 일부러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 지혜롭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써,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위로는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통솔력이 있어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손을 쩍 벌려서 다 안아 줄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가져야만이 우리 이 마음이, 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이 다 회전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 당신이시여! 당신도 나고 나도 당신이라니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화목하게, 즉 말하자면 파워를 일으키지 않고 회전을 해 줄 때에 내 몸도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몸을 가졌으니 마음도 건강해져서 일하는 것도 능률이 나고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 능력이 있어서 위로는, 부모 조상들한테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원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심력은, 보는 것만도 도가 아니고 남의 속을 아는 것도 도가 아니고, 과거의 일을 잘 아는 것도 도가 아니고 오고 가는 것이 없이 오고 가는 것도 도가 아닙니다. 그 오신통도 놓고 나와야 바로 원통력을 굴릴 수 있다 이겁니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타의에서 구하는 그 기복! 그것은 이익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만, 요 몸뚱이가 있을 때 요것만이 나라고 하지 마세요. 한 나무로 비유한다면, 저 가랑잎이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떨어진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파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내가 죽는 게 아니요, 그 많은 이파리가 바로 내 형제 내 부모, 모두가 나 아님이 없는 한 나무의 한 이파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싸운다면 한 나무의 한 이파리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거대하고 광대무변한 우리의 이 마음 하나가, 수억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있고 수억을 살리려 해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도법이, 바로 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하셔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울 때는 자기 내면 세계에 주인공 안테나를 탁 세워 놓고 '보고 듣고 하는 오신통이 모두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이 안테나를 세우지 않으면 세균이나 유전성이나 영계가 들어와서 내 집이 빈집인 줄 알고 맘대로 왕래를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의 안테나는 바로 자동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들일 건 들이게끔 해서 내 몸과 내 가정과 사회를 튼튼히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테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현시대를 잘 내다보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전화나 모든 게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는 이 허공에도 길이 있고 생명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왜 그냥 뜨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허공에 생명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가 그냥 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도, 또는 그 뭡니까? 저, 화산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생명체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일체가 지수화풍의 바탕으로 인해서 미생물에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조성됐고, 그 조성된 생명들로 인해서 우리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하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몸뚱이가 나왔으면 칼을 뺀 거와 같습니다. 그냥 갈 수는 없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깨치지 않았어도 주인공의, 즉 말하자면 한마음의 안테나를…, 몸뚱이로 봐서도 한마음입니다. 한마음의 여래의 집이에요. 내 집만이 아닙니다. 한마음의 집이죠, 이게. 여러분 몸뚱이가 한마음의 집입니다. 그래 한마음의 집에서 그 한마음으로 한번 내디딜 수 있는 패기와 물러서지 않는 믿음과 그런 것이 있다면 역력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는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내 몸에도 만약에 간이 아프다 그러면 소장이 대장더러 하는 소리가 '여기가 이렇게 파워가 일어나고 고장이 났습니다.' 하고 누진으로 신호를 올리는 거라고요. 신호를 올려서 나를 알게 하는 거죠. 내가 그걸 알았으면 조치를 해야죠. 대장이, 선장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아픈 걸 알면서도 금방 대치를 못 해요. 왜? 모르니까요. 이것은 의학이라도 심성의학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적인 것을 찾아도 심성 없이는 과학도 의학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없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몸뚱이도 움죽거려서 왔죠? 마음이 있으니까 차도 끌고 다니지요? 마음이 있으니까 일체 만법을 응용하고 있잖아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7월 3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 리 통 증
무 릎 통 증
어 깨 / 목 통 증
손 목 / 발 목 통 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㊶ 불가촉천민 니디를 바꾸신 부처님, 부모 교육 '자존감' (6)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시무외자 부모
〈施無畏者〉

"선생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한 문장을 몇 번씩 되묻는 아이. 선생님의 고개 끄덕임과 "괜찮다"는 말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인다.

이 아이는 조용하고 반듯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늘 긴장이 감돌고 실수나 예고 없는 변화 앞에서는 쉽게 무너진다. 불안이 높은 아이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늘 '혹시'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졸인다. 무언가 틀리면 관계가 깨질까 두렵고, 작은 실수조차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아이의 기질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대체로 감각이 예민하고 낯선 환경에 민감하며, 변화에 취약한 타고난 기질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 세상을 마주하는 '기본 설정'이 다른 것이다.

이 아이들은 세상을 '재밌고 신나는 모험의 장'으로 보기보다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 경계심을 품고 주변을 살피며 불확실한 상황은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미리 걱정하고 확인하며 마음을 단단히 다지려 애쓴다. 그 모든 노력은 결국 "안전하고 싶어서"이다.

이런 기질은 약점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민감성이다. 위험 감지 능력이 뛰어나고 조심성이 깊으며 공감 능력 또한 섬세하다. 하지만 동시에 자극에 쉽게 압도되고 낯선 관계에서는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아이의 기질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부모의 기질이다. 우리가 아이를 이해하려 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 아이를 바라보면, 자칫 내 기준과 감정을 아이에게 덮어씌우게 된다.

기질이 다르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말하지 않은 감정을 왜곡되게 전달할 때, 관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긴다. 부모는 아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아이는 그 안에서 '내 감정은 틀렸다'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 자극을 추구하고 걱정이 적은 부모는 "그냥 해보면 되잖아"라는 말로 용기를 주려 하지만, 불안이 많은 아이는 그 말 속에서 "나는 너무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인다. 위험을 가볍게 넘기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 감정 표현에 무던한 부모는 아이의 걱정과 불안을 '예민함'이나 '오버'로 받아들이기 쉽다.

반대로 부모 자신도 불안이 높은 기질이라면, 아이의 불안을 너무 잘 이해한 나머지 대신 걱정해 주거나 과잉 개입하게 되기도 한다. 이것 역시 아이의 불안을 줄여 주기보다는, 스스로 감정을 견디고 조절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의 불안은 문제 아니라 '신호'
기질 차이 품는 마음이 두려움 극복

그래서 우리는 '기질의 차이'가 서로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자각할 필요가 있다. 기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관계 안에서 어떤 오해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이의 불안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빨리 없애려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읽고 머물러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불안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아이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며, 그 나름의 조심성과 진지함이 담긴 조건이다.

아이를 돕고 싶다면 먼저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 불안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바라보는 일. 그렇게 부모가 먼저 조율하고 기다릴 수 있을 때, 아이는 자기감정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관세음보살은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이(施無畏者, 시무외자)'로 불린다. '시무외자(施無畏者)'란 말 그대로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사람을 뜻한다. 즉 불안, 공포, 위협 속에 있는 이에게 마음 놓을 수 있는 안전함과 신뢰를 실천하는 존재이다.

'보문품'에 따르면, 관세음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누군가가 부처의 가르침에서 위안을 얻는다면 부처의 모습으로, 성문이나 벽지불의 법문을 따르는 이에게는 성문과 벽지불의 모습으로, 장자나 동자, 혹은 하늘의 신령한 존재로도 응현해 그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다가간다.

관세음보살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이(시무외자)'로서의 자비 실천이다. 두려움은 낯섦에서 온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낯선 존재 앞에서 쉽게 마음을 닫는다. 관세음보살이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배려이다. 또한 같은 모습은 연대감을 준다. "나는 너와 다르지 않다"는 침묵의 메시지를 통해 마음을 열고 안도할 수 있는 신뢰가 생긴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옴 자체가 위로임을 알아야 한다. 관세음보살은 상대가 가장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얼굴로 다가가며, 그 마음에 맞춰 자비를 실천한다.

불안이 많은 아이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조언하고 고쳐주며 설득하려 했는가. 오늘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 곁에 머무는 방식, 아이의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기질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 모든 노력이 바로 불안감이 높은 아이의 '시무외자'가 될 수 있다.

*현대불교신문 부산주재기자이자 가족상담전문가로 지역 가족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 365

㊷ 임신 중 고혈압성 질환

태아와 산모를 위한 알아차림

임신은 기쁨과 설렘의 시간이지만, 때때로 우리 몸은 경고를 보냅니다. 그중 '임신중독증'으로 잘 알려진 임신 중 고혈압성 질환은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으로, 전체 임신의 약 2~8%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간증'이라는 용어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고혈압성 질환의 분류

임신 중 고혈압성 질환은 발생 시기와 증상의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임신 전 또는 임신 20주 이전 고혈압이 있었던 경우는 만성 고혈압, 임신 20주 이후 처음 고혈압이 발생하되 단백뇨는 동반되지 않는 경우는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단백뇨 또는 혈소판 감소, 간기능이나 신기능 저하, 두통, 시야 장애, 폐부종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전자간증으로 진단하며, 전자간증 산모에게 원인 미상의 발작이 발생한 경우는 자간증으로 분류합니다.

원인과 위험 요인

명확한 원인은 없지만, 태반이 자궁에 제대로 착상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면역학적 이상, 혈관 생성 인자의 불균형, 산화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초산, 다태임신, 고령 산모(35세 이상), 당뇨병, 만성 고혈압 등이 있습니다.

증상과 진단

전자간증은 고혈압(140/90mmHg 이상)과 함께 단백뇨(24시간 단백뇨 300mg 이상 또는 단백/크레아티닌 비율 0.3 이상), 간기능 저하, 혈소판 감소, 신기능 이상, 시야 장애, 두통, 폐부종, 상복부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110mmHg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 전자간증으로 진단하여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료 및 관리

전자간증의 궁극적인 치료는 임신의 종결입니다. 다만, 태아가 아직 생존 가능 주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경증 주 2회 산전 진찰, 38주 분만 계획
일반적 분만 12주 이내 혈압 정상화돼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자간증이 경증인 경우에는 외래에서 주 2회 산전 진찰을 받으며, 자가 혈압 측정을 통해 상태를 관찰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38주에 분만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되면 입원이 필요하며, 이때는 혈압과 단백뇨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혈액 검사와 태아 상태 평가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안녕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자간증이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마그네슘 제제를 투여하며,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mmHg 이상일 때에는 혈압 강하제를 사용합니다.

증상 악화로 인해 조기 분만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아의 폐 성숙을 돕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게 되며, 증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34주 이후 분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작, 폐부종, 태반 조기박리 등 급성 악화 소견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분만을 시행하여 임신을 종결하게 됩니다.

예후와 산후 관리

일반적으로 분만 이후 12주 이내에 소변량이 점차 증가하며 산모의 혈압 정상화가 됩니다. 만약 12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다면 만성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게 되고 적절한 혈압 관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분만 후 혈압은 12주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4명 중 1명은 향후 만성 고혈압으로 이행할 수 있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노력

이전 임신 중 고혈압 질환 기왕력이 있거나 다태아 임신, 고혈압 질환을 임신 전 진단 받은 경우, 현성 당뇨(임신 전부터 이미 존재하거나, 임신 중 검사에서 발견된 명확한 당뇨) 산모 등 고위험 요소가 있다면, 임신 12~16주부터 경구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을 시작해 분만 시까지 유지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조혜정
동국대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알아차림으로 다시 선 자리

7월 1일, 6개월마다 병원에 가는 날이 다가오면 내 마음은 자연스레 몇 해 전 그날로 향한다. 2020년 12월, 한 해의 끝자락이었다. 갑작스러운 뇌경색. 학업 때문에 혼자 자취 중이던 당시, 경주 함월사 주지 스님께서 "법당 부전 스님이 자리를 비우니 며칠 소임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절에 들어간 지 이틀째 되는 날 일이 벌어졌다.

새벽 2시 45분쯤, 예불 준비를 위해 방의 불을 켰는데 갑자기 내 몸이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도 낼 수 없는 상태, 그야말로 혼수상태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스님께서 일찍 일어나셨다고 했다. 이유는 꿈이었다. 스님은 꿈에서 나를 보았고 3시 도량석이 울리지 않자, 곧장 내 방으로 오셨다. 덕분에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었다.

누군가는 이를 '기적'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연기(緣起)'의 실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수많은 조건이 맞물려 하나의 결과로 이어졌던 그 순간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생기(因緣生起)의 진리를 실감케 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내게 왼손과 왼다리를 들어보라고 했다. 그때에도 나는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이 곧 고통의 시작이자 원인이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無明), 곧 '알지 못함'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그 뒤 의료진의 처치, 스님의 기도, 가족과 지인들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내 노력이 더해져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예전 같을 수는 없었다. 결국 뇌에 후유증은 남았지만, 의사의 말은 위안이자 희망이 되었다. "손상된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지만, 새로운 신경 회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마치 '새로운 업(業), 선(善)업을 지어 가라'라는 불교의 메시지처럼 다가왔다.

퇴원 후 잃어버린 기억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음엔 상처가 남았고, 사람들 속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믿음 하나는 꺼지지 않았다. 부처님과 기도의 공덕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신뢰였다.

돌이켜 보면, 그때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많은 것이 사실은 고정된 생각과 집착, 견해에 불과했다. 삶은 언제나 변하고 그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내가 겪은 고통도,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 조건도, 모두 인연 따라 모인 결과였다. 비로소 아무것도 내 뜻대로 붙잡아 둘 수 없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은 놓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집착에서 조금씩 물러나고, 변화에 저항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된 것 같다.

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띠(Sati)', 깨어 있는 알아차림의 삶으로 바로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한다. 그것이 내가 고통 속에서 배운 가장 깊은 가르침이자, 앞으로도 지속하고자 하는 수행의 자세다.



현도 스님
한국불교상담학회 특임이사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⑰ 사위설

삶 변형 위한 진정한 테크놀로지

근대 우리 불교를 부흥시킨 경허 선사의 삶은 감동적이다. 그는 참선곡(參禪曲)에서 '돌장승이 아이 낳는 그때'에 가르침을 주겠다며 참된 선 수행의 경지로 우리를 초대한다. '홀연히 생각하니 도시 몽중'이라는 첫 구절은 우리네 삶이 여전히 미몽에 갇혀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깨닫기 전까지는 여전히 업식으로 가려진 무명의 삶! 이는 꿈속 같은 삶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의식에는 여러 층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장자의 호접지몽(胡蝶之夢)과 비교되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인도식 사유방식이 도사리고 있다. 〈만두캬 우파니샤드〉에 의하면, 참된 자아는 의식의 세 가지 상태 너머에 있는 상태로 제 4위(turīya)에 해당한다. 이 상태는 현상세계의 적멸, 적정, 상서로움 등으로 표현된다. 반야지혜의 공성을 갈파한 〈중론〉의 귀경게에 나오는 개념인 적정(śanti)과 상서로움(śiva), 적멸 등의 표현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불교의 깨달음은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최고의 의식 상태와 대비가 된다. 일반적인 의식 상태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의식의 사위설(四位說)에서 투리야 이전 단계는 각성위(覺醒位), 몽면위(夢眠位), 숙면위(熟眠位)로 구분한다. 오장설이 오온설과 비교되었듯 네 가지 의식 상태인 사위설은 불교의 네 단계의 선정을 설명한 사선정설과 대비된다. 이를 활용해 의식의 단계를 검토하면 일상에서 자신의 상황을 돌이켜 보게 하는 매력이 있다.

사위설, 불교의 사선정설과 대비
우파니샤드 차제적 설명 전개
참선곡은 돈오로 직입하는 방식

각성위에서는 색법인 신체적 조건에 따르는 거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상태는 공통적 속성으로 보편적이기에 보편위(普遍位)라고도 한다. 꿈꾸는 상태인 몽면위는 미세한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즉 신체적 감관 활동이 멈추고 마음이 자신의 빛으로 작용하는 단계이기에 광명위(光明位)라 한다. 숙면의 상태를 지칭하는 숙면위는 꿈조차 사라진 수면 상태이다. 이때 자아는 경험에 종속되지 않는 초월적 속성을 지닌다. 인식 주체와 대상의 경계가 소멸된 순수 의식의 상태이기에 지혜위(智惠位)로 지칭된다.

〈우파니샤드〉의 설명 방식은 다분히 차제(次第)로써 한 단계씩 올라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참선곡은 한반도의 선적 가치를 보여 주며, 돈오로 직입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망령된 몸은 풀끝의 이슬처럼 허망하고, 바람 속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이는 선 수행의 경문일침과도 같다. 이제 선정의 단계에서 알려진 것처럼 심과사, 희와 열(尋伺喜悅)을 넘어서 불조의 혜명(慧明)에 도달하고자 원력을 세우며 스스로를 일깨울 시간이다.

일상의 염불에서도 그렇다. 염불은 삼매라는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수단이다. 염불공덕의 결과는 일체불현전삼매(一切佛現前三昧)로 의역되는 반주삼매(般舟三昧)에 머물게 한다. 대승보살의 염불수행은 반주삼매에 머물며 붓다의 공덕력(功德力), 위신력(威信力), 삼매력(三昧力)의 세 가지 힘에 의해서 부처님 앞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전삼매의 실상에 도달하도록 의식의 집중을 유도하는 지침이다. 불교수행 방법은 현실을 넘어서는 기법으로 충실하다. 그러므로 삶의 변형을 위한 진정한 테크놀로지이기도 하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미얀마,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쉽게 잊는다. 어쩌면 잊는 일이 인간에게는 당연한 방어기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망각의 결과는 고스란히 누군가의 삶 위에 재난처럼 덮인다.

올해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이 그렇다. 미얀마 중부를 강타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3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5000명 넘게 다쳤다. 건물과 도로가 무너졌고, 불교 사원 등 문화유산도 크게 손상됐다. 국제기구와 NGO들이 구조 인력을 파견하고 긴급 지원을 이어갔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진의 흔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6월 18일, 로터스월드와 함께 미얀마 네피도의 지진 피해 마을 2곳을 찾았다. 그곳에서 지진 이후 힘겨운 시간을 버텨 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갈라진 대지 위에 서 있는 그들의 삶은 생각보다 위태로웠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터전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나무와 철판으로 얼기설기 세운 임시 주거지였다.

현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지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잔해는 일부 치워졌지만, 새롭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짓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불교국가' 미얀마의 시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19 시기엔 지역 간 이동이 전면 봉쇄되면서 스님들의 탁발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스님은 물론 사원학교에서 생활하던 아이들과 주민들도 매번 끼니 걱정을 해야 했다. 설상가상, 2023년 말에는 59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다. 고속도로와 철도 구간, 주택이 침수되며 1만 80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해와 전염병, 경제난과 지진 피해까지. 미얀마는 지금 겹겹의 위기 속에 놓였다. 그럼에도 언론 보도가 줄고, 기억이 희미해져 가면서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관심에서 빠르게 멀어졌다.

그러나 불교는 가르친다. 고통 앞에 침묵하지 말라고.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자비라고. 미얀마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오래 기억하고 함께해야 한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 일타강사
BTN 불교TV에 다 있다!
모든 번뇌를 날려버릴 족집게 법문

문광스님 한국학 에세이 (본) 매주 (화) 07:30 (재) 매주 (화) 19:30 / (토) 12: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소중한·나·무한행복 (본) 매주 (목)07:30 (재) 매주 (목) 19:30 / (일) 19:00
법장스님의 Together 투게더 (본) 매주 (금)07:30 (재) 매주 (금) 16:00 / (일) 23:15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매주 (금) 08:30 (재) 매주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불교 찾은 MZ, 맞이할 준비돼 있는가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지난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출판 트렌드는 '부처'와 '불교'로, 일반 출판사에서 불교 책들이 우후죽순 출간돼 대형서점에 판매되고 있다. 재작년 봄, 불교계 출판사가 아닌 A출판사로부터 〈법구경〉의 인문학 에세이를 저술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작년 봄에 출간했다. A출판사는 일반 철학 관련한 책을 주로 출판하는 곳으로 출판계에 입지가 굳은 회사이다. 이때 출간된 책 〈법구경 마음공부〉가 대형 서점에서 1년 넘게 평대에 자리 잡고 있고, 근자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A출판사로부터 재차 책 출판을 의뢰받았다. 이번은 'MZ세대가 볼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니, 불교 경전에서 쉬운 내용을 뽑아 달라'는 취지였다. 갑작스런 원고는 쉽지 않지만, 최근 MZ세대가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 힘들어도 문서 포교하는 사람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책 하나가 출판되면, 부수적인 일들이 생긴다. 어느 유튜브 채널 제의로 이번 책과 관련한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영상 촬영 전, 그곳에서 보내온 질문이 '요즘 젊은 층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른 하나는 '요즘 명상이 널리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 선(禪)과 명상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질문이 꽤 사려 깊다는 생각을 했다. 막상 촬영 날 작가를 만나보니, 그녀는 기독교인이고 몇 년에 한번씩 선교 활동을 하는 분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불교 명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출판 트렌드 '불교'
'힙불교', 단기 유행 안 되려면
시대 맞는 새로운 불교 창출을

근자 필자가 받는 질문이 'MZ세대'라는 단어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불교 관심에 필자는 크게 놀라지 않는다. 원래로 돌아간 느낌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원래 젊었고, 부처님 진리에 매료된 출가자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고 5비구 다음으로 제자가 된 사람도 청년 야사였다. 우리나라도 나말여초·고려시대에는 젊은 출가자가 많았다. 특히 왕족 출가자들이 많았으며, 숭유억불 조선 시대에도 출가자는 이전보다 많았다.

이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최근 불교는 출가자가 급감하고, 출가자들 평균 연령이 높다. 게다가 불교신자도 줄고 고령화되고 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불교에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2000여 년간 동아시아 국가에 불교는 문화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불교를 대신할 다른 문화 코드가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불교 신자 감소는 문화적인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불교를 환호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옛날로 돌아간 셈이다. 그러면 지금 이 현실에서는 'MZ세대의 불교 관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들의 관심을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가'가 남는다.

첫째는 젊은 층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것은 불교로 개종한다는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불교의 평화 사상에 매료된 것이다. 제도권에 영입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오래도록 유지되기 위해서는 불교를 찾는 MZ세대들의 수요에 불교계가 따라줘야 한다. 현 시대 문화와 결합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불교가 창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 유행하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

둘째는 현재 불교계에서 하고 있는 포교 정책 사업이 꾸준히 계속 연계돼야 한다. 이에 따른 과감한 투자는 필수다.

모두를 위한 도량, 모두를 위한 불심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내년 시화집 발간을 계획하며, 최근 제주를 취재차 다녀왔다. 자연과 역사를 살펴보고 사찰을 둘러보며 '장애인에게 사찰은 어떤 공간인가'를 다시금 묻게 되었다. 불자로서, 그리고 장애불자 단체를 이끄는 입장에서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념이 아닌, 지금 이 삶에서 실현되어야 할 가르침이다. 오늘날 '배리어프리'는 그런 자비의 현대적 실천이기도 하다.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일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넘어, 불교 공동체 전체의 성숙과 직결된다.

다행히 최근 사찰에서는 '무장애' 공간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오르기 어려운 계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부족,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법문 부재 등 장애인에게는 수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불자라면 누구나 기도하고 법문을 듣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찰은 때때로 장애인에게 높은 문턱이다. 외형적 장벽은 곧 마음의 장벽으로 이어진다. '특별한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장애인을 도움받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고정관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수행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과거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시각장애가 있던 아나율 존자, 지적장애를 가진 주리반특 존자가 있었다. 지금의 장애불자들 역시 부처님의 제자이며, 수행의 주체다.

'배리어프리' 사회 트렌드 확립
아직도 장애불자 홀대 사례 多
진정한 '無장애' 편견 극복부터

제주에서 겪은 일이다. 한 사찰에서 안내지를 요청하자, 담당자가 "글씨는 알아요? 들리고 보이긴 해요"라며 물었다. 말없이 안내서만 받아 나왔지만, 그 짧은 질문은 오래 가슴에 남았다. 서울로 돌아와, 한 회원은 모임 때문에 간 어느 불교회관 입구에서 "보호자는 없냐? 왜 왔냐"는 무시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중증장애인이지만 신행에 누구보다 성실한 불자다. 이런 말은 매번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사찰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신행의 공간이어야 한다. 휠체어에 앉아 굽은 손으로 합장하는 모습, 점자경전을 더듬는 손끝, 수어로 염불하는 손짓 또한 수행의 한 모습이다. 이들은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이웃이며, 부처님 제자들이다.

진정한 배리어프리는 건물이나 시설 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 인식의 전환, 차별 없는 마음, 동등한 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사홍서원의 첫걸음,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에 닿는 길이다.

여름 방학과 휴가철이 다가오며, 많은 사찰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다. 나는 묻고 싶다. 진정한 도량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 높은 계단보다 깊은 이해가 있고, 화려한 장엄보다 따뜻한 맞이가 있는 곳. 장애가 있어도, 언어가 달라도 누구나 기도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그곳이 곧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야 할 불국토이며, 자비의 도량이다.

社 說

전통과 변화 함께하는 전법포교 기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000일을 맞아 6월 23일 1000일차 108배를 회향하며 선명상 보급과 재정기반 마련, AI콘텐츠 개발, 청년세대 소통 등 미래 시대 전법포교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그간 강조해 온 선명상 보급은 전국 사찰이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템플스테이와 연계함으로써 사찰이 국민적 수행처로 기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명상 대중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단 재정의 자립과 투명성 확보는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본말사가 재정적 자립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특히 종단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고, 불교정신에 부합하는 윤리적 수익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재정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기로 해 주목된다.

AI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법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책이다. 최근 불교를 친근하게 여기는 젊은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교를 전달하겠다는 구상은 미래 세대와의 소통 가능성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소통' 전략도 추진된다.

이 같은 비전은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종책과 로드맵으로 가시화될 예정이다. 조계종의 전법포교 혁신 비전이 전통과 현대, 수행과 기술, 신앙과 대중 사이의 다리를 놓는 시도가 되길 기대한다.

태고종, 종단 외연 확장 기대된다

최근 가장 활발하게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불교 종단은 단연 '태고종'이다. 각종 사회 이슈를 선점해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이 중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있다.

상진 스님은 취임 초부터 종단 구성원과의 소통과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종단 외연 확장을 위해 상진 스님은 총무원장 직속 대외협력자문위원회를 발족·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기에 이어 올해에도 2기 자문위원들이 위촉됐다.

새롭게 영입된 자문위원은 정치, 경제, 문화유산, 학술, 전법포교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문화유산과 전법포교 분야가 강화된 점이 눈길을 끈다. 문화유산 활동가인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지자체 공무원 학예연구사 단체인 엄원식 전국학예연구사회장 등과 전법포교 분야에 합류한 전 대불련 회장인 주현우 해탈컴퍼니 대표와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이 그 방증이다.

이는 전문가들의 종단 사업 참여로 종단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상진 스님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지적해 달라. 태고종은 그 부족함을 채워가며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했다. 자문위원들의 경책과 조언을 거름 삼아 태고종이 외연을 확대하고 종단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7월 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7월 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7월 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불법의 연꽃, 평택서 피어나다”



법화종 공익법인 운흥사(운영위원장 현진 스님)는 6월 22일 평택시 안중읍 대일빌딩에서 평택지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참석한 사부대중이 개원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공익법인 운흥사, 6월 22일 ‘평택지점’ 개원

평택=노덕현 기자

불법의 연꽃이 평택 도심에 피어났다. 대한불교법화종 전법거점인 공익법인 운흥사 평택지점이 6월 22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대일빌딩에 개원을 알리고, 법화경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자비실천 도량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공익법인 운흥사 평택지점 개원은 장대순 보살이 자비심으로 평택 대일빌딩을 온전히 희사함으로써 성사된 것으로, 법회 현장에서는 수행자의 길을 걷는 보살의 지극한 발원이 500여 지역불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장 보살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전에 자비보살행을 실천하고자, 지상6층 지하1층에 달하는 대형빌딩 자산을 운흥사에 시주했다. 이에 공익법인 운흥사는 개원법회에서 공로패를 헌정하며, 보살의 원력을 길이 전하겠다는 서원을 밝혔다.

운흥사 주지이자 운영위원장인 현진 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장대순 보살님께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간 마음이 벅차올라 울컥할 정도로 감사하고 감동스러웠다. 작은 도량의 주지로서 공익법인 설립을 추진하던 중, 장 보살님의 시주는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인연이었다”며 “이 복덕을 연결해주신 법화종 충북교구 관음사 도원 스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장대순 보살, 평택 대일빌딩 희사
전법포교 원력에 수희 동참
안중읍내 지상6층 대형건물
공익법인 운영위 체제 활동 예정

또한 스님은 이번 평택지점 개원에 대해 “이곳은 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모두가 이로운 자리’, 법화의 가르침을 펼치는 공익적 도량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저 혼자가 아닌 여러 도반 스님들과 함께, 누구나 활용하고 함께하는 열린 법인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화종 전법도량으로 탄생에 법화종 총무부장 현묵 스님이 총무원장 관효 스님의 축사를 대독하며 개원의 의미를 더했다. 축사에서 관효 스님은 “사찰의 개원은 단순한 공간의 개방이 아닌, 법의 향기가 깃들고 중생의 마음에 등불이 밝혀지는 시작”이라며 “평택지점은 시대가 요구하는 자비와 지혜의 도량이자 법화종 법맥을 이어가는 살아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흙 속에서도 한 점 더러움 없이 피어나는 연꽃처럼, 평택이라는 도시의 중심에서 피어난 운흥사의 연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맑고 바르게 전하는 청정 도량이 될 것”이라며, 주지 현진 스님과 시주자 장대순 보살의 원력에 깊은 감사와 찬탄을 표했다.

끝으로 〈법화경〉 서품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정진하는 이가 바로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운흥사 평택지점이 마음의 쉼터이자 수행의 공간으로 널리 회자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이번 운흥사 평택지점이 개원하기 까지 큰 역할을 한 법화종 충북교구 관음사 주지 도원 스님은 직접 경과보고를 맡아 개원 의미를 되새겼다.

도원 스님은 “2600년 전 수닷타 장자가 기원정사를 보시해 최초의 불교 사원이 세워졌듯, 스님들의 전법포교 원력을 듣고 도량을 희사한 장대순 보살의 공덕을 잊지 않고 그 뜻을 잇는 도량으로 자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익법인 운흥사 평택도량이 불보살의 법등이 끊임없이 법화되는 불국정토를 펼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도량을 희사한 장대순 보살은 말을 아끼며 “아무쪼록 스님들의 전법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운흥사 평택지점은 운영위원회 중심의 사찰 운영 체계를 갖추고 지역 내 포교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운영위원회는 운흥사 현진 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영경사 혜문 스님 △해월사 해월 스님 △광덕사 지성 스님 △심원사 송열 스님 △금륜사 승일 스님 △관음사 도원 스님 등 7명의 스님들로 구성돼, 사중의 지혜를 모아 공동체적 수행공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운흥사 평택지점 3층은 공익법인 사무실, 4층에는 불교박물관 등이 자리한다. 공익법인 운흥사는 불교문화 보급과 자비나눔 실천을 위한 전국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평택지점 개원을 계기로 경기 남부권 신행거점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법회는 △부산불교연합산하 무형문화재 제9호의 장엄한 불공의식 △개원경과보고 △공로패 수여 △사부대중의 발원문 낭독 등 본행사와 함께 사물놀이, 살풀이 공연 등이 이어졌으며, 참석 대중은 대일빌딩 인근에서 지역민들과 공양을 함께 나누며 개원의 기쁨을 나눴다.



법화종 공익법인 운흥사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일빌딩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자비실천 도량으로 첫발을 알렸다.


공익법인 운흥사 평택지점 개원까지는 법화종 스님들의 전법포교 행을 지원하기 위한 장대순 보살(사진 오른쪽)의 희사가 있었다.


운흥사 평택지점 개원 인연을 맺게 해준 관음사 주지 도원 스님과 장대순 보살, 공익법인 운영위원장 현진 스님 등 대중이 4층에 위치한 불교박물관을 돌아보고 있다.


공익법인 운흥사 운영위원회는 △영경사 혜문 스님 △해월사 해월 스님 △광덕사 지성 스님 △심원사 송열 스님 △금륜사 승일 스님 △관음사 도원 스님 등 7명의 스님들로 구성됐다.



현진 스님은 인삿말을 통해 법화종 운흥사 평택지점을 법화 가르침을 펼치는 공익도량으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운흥사
본 점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3길 71-77 와룡산 운흥사 (남강 절벽 위 방생도량)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서2길13 대일빌딩 3층